

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00.10	↑ 코스닥	690.80
	(+45.62)		(+14.96)
↑ 금리 (연이자율)	2.585	↑ 환율 (원/달러)	1401.55
	(+0.018)		(+0.25)



美, 對中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中 HBM 기술자립 가속화 우려

미국, 中 AI군사활용 등 억제 위해 HBM·제조장비 중국 내 수출 통제 HBM 사업 中 의존 큰 삼성 '타격' 엔비디아 전략 납품 SK, 영향미미

미·중 수출 통제 조치가 계속 강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미국은 2일(현지시간) 대(對)중국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주요 반도체 제조 장비를 포함하며,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약화에 한몫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지원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중국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과 반도체 시장 지형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중국의 AI 군사활용 등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기업의 HBM과 제조 장비에 대한 중국 내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 통제 보완 규정을 발표했다.

BIS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은 다섯가

지로 요약된다.

▲24종 반도체 제조 장비 및 3종 반도체 개발 및 생산 소프트웨어 도구 수출 통제 ▲HBM에 관한 새로운 규제 ▲준수 및 이전 문제에 관한 레드 플래그 경고(Red Flag Guidance, 강화된 사전 경고 시스템) 도입 ▲NTT리스트에 140개 신규 목록 및 14개 항목 수정 ▲기존 규제 강화를 위한 일부 내용 수정 등이다.

BIS는 “응용기술은 첨단 군사 및 정보 기술을 활용가능하게 하고, 비전문가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진입 장벽을 낮추며 강력한 공격형 사이버 작전을 지원하거나 인권 유린을 저지르는데 사용되는 대규모 감시를 도울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HBM 전체 시장의 9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악한 만큼 우리 기업에 대한 타격 우려가 컸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즉각 참고자료를 내고 부인했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한미 동맹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며 “기업의 수출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모색에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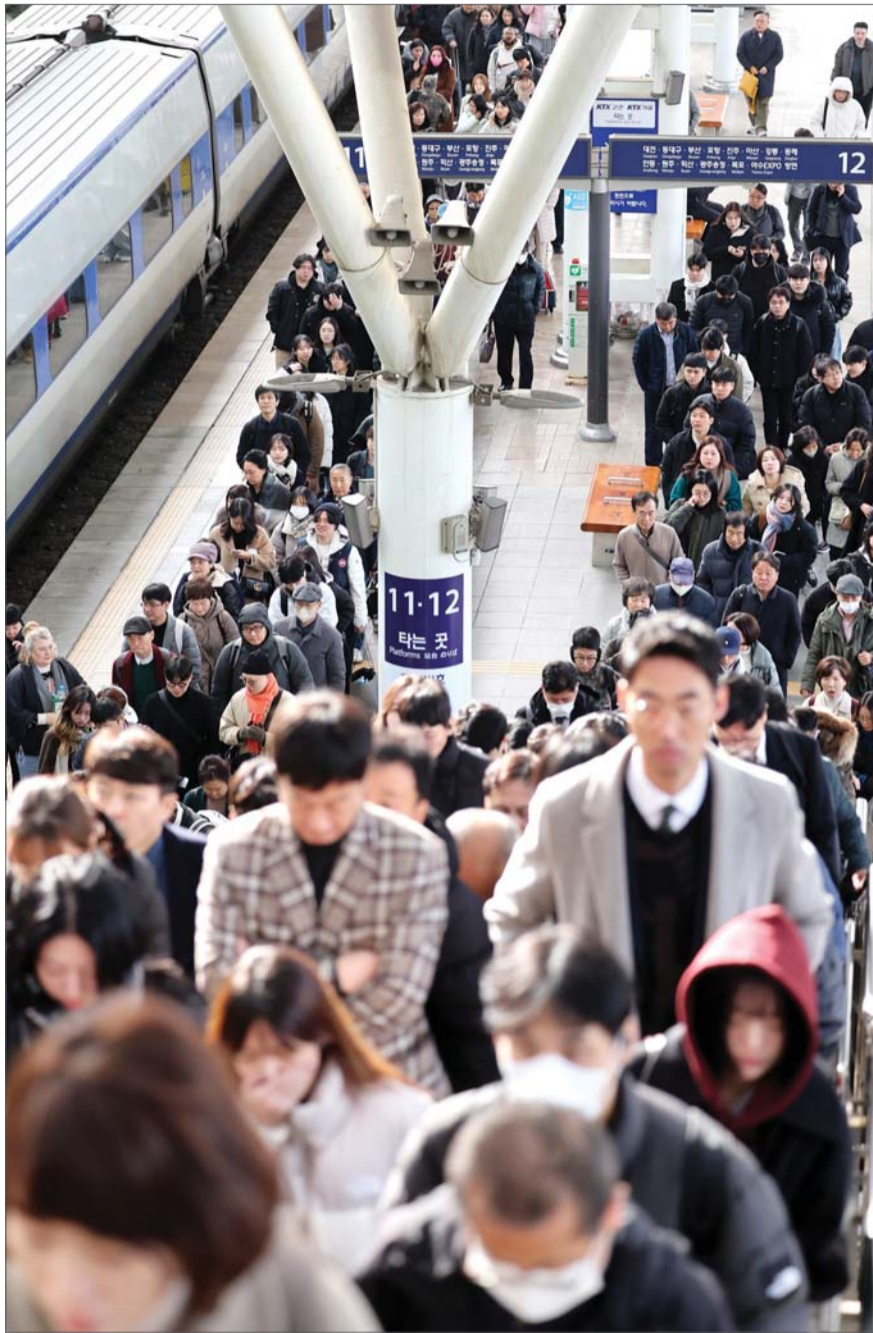
HBM을 주력상품으로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로 다른 상황을 맞이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HBM 사업의 20% 전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아직 고부가가치 상품인 HBM3E의 매출 비중이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HBM2와 HBM2E 매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HBM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 중인 SK하이닉스는 생산하는 HBM 제품 전체를 엔비디아에 납품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제재 조치에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장기적으로 반도체 시장 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시장 상황에 대한 민첩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반도체 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가속화 한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중 중국이 HBM3를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보고, 이번 조치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총파업 앞둔 서울역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사진은 철도 노조 파업을 이틀 앞둔 3일 서울 중구 서울역 승강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대량구매 등 '규모의 경제'로 비용 절감

정용진의 emart, 생존전략

이마트가 올해 3분기 별도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대형마트 업계의 전반적인 정체 속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력 사업인 할인점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감소세를 보이며, 수익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할인점 사업은 이마트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심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모습이다. 이에 이마트는 공급망 효율화를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서는데, 소비 시장 공략으로 매출 확대를 노리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공급망 관리에서는 대량 구매와 물류 최적화를 통해 단위당 비용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소비자 체험형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미래형 점포 확대도 함께 추진 중이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이마트의 성장 전략을 2회에 걸쳐 분석한다. /편집자 주

(上) 공급망 효율화

이마트-트레이더스 매입조직 통합 신규농가 계약 늘리고 물류도 강화

올해 전세계의 인사 및 조직개편을 통해 본격적인 정용진 회장 체제에 들어간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우선 할인점 부문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공급망 관리에 집중하며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올해 3분기 별도 기준으로 총매출 4조6726억원, 영업이익 122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11.4% 증가를 이뤄냈다.

하지만 할인점 부문만 놓고 보면 실적은 다르다. 2022년 3분기 763억원이었던 할인점 영업이익은 2023년 3분기 733억원, 2024년 3분기 705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력 사업의 수익

성 하락은 이마트에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마트가 꺼내 든 핵심 전략은 공급망(SCM) 관리를 통한 비용 효율화다. 이미 지난 2011년 미트센터와 2012년 후레쉬센터 설립한 이마트는 이를 통해 유통 단계 축소, 공급망 효율화 등을 위해 각각 축산물과 농산물의 가공·유통 과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SCM 효율화를 실현해오고 있다.

미트센터는 도축된 고기를 가공·포장해 이마트 매장으로 직접 공급하며 품질과 신선도를 관리하고, 후레쉬센터는 수확철 농산물을 대량 구매해 CA 저장 기술로 신선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이마트의 공급망 효율화는 규모의 경제 전략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3면에 계속> /안재선 기자 wotjs4187@

대한항공, 11일 아시아나 자회사로 편입

22일까지 신주인수대금 납입 아시아나 지분 약 63.9% 취득

대한항공이 4년여만에 기업결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대한항공은 11일 이뤄지는 아시아나항공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신주 약 1억 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3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 날짜를 일주일 가량 앞당기면서 합병에 속도를 낸다.

대한항공은 “해의 기업결합심사 종결 등 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 충족 예상으로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한다. 오는 22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대금 총 1조5000억원(영구채 3000억원 별도) 중 남은 8000억원을 납입해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다.

이경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약 63.9%(1억 3157만 8947주)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른다. 편입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2년간 독립적으로 운영한 뒤 통합 출범할 방침이다. 이 기간 인력 교류는 물론 중복 노선 정리, 마일리지 통합, 새로운 기업 이미지(CI) 등 화학적 결합을 위한 작업이 이뤄진다.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면 매출 21조원, 항공기 226대, 임직원 2만 7000여명의 세계 10위권 국내 초 대형 항공사가 탄생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이후 14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왔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마지막 최종 승인을 받으며 미국 법무부(DOJ)에 이를 보고한 상태다. DOJ가 별도로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양사의 기업결합은 마무리된다. /양성운 기자 ysw@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야 “용산 출신 주진우, 채상병 국조위원 부적합”... 주 “사건과 무관”
▲ 한 “민주, 간첩범 갖고 국민 약올려... 진영 눈치보다 국익 버릴건가” /사진 뉴시스

▲ 법사위, ‘검사 집단행동 감사요구안’ 야 주도 의결... 여 “이재명 오더나”
▲ 민주 윤종군 “국힘 ‘인사 청탁’ 의혹 김상훈 의원 중징계 해야”



▲ 대통령실 “여의정 협의체 언제든 재개... 의로계, 강성 주장에만 매몰 안됐으면”
▲ 한 총리 “내수 소비 진작·양극화 해소에 정책 역량 집중” /사진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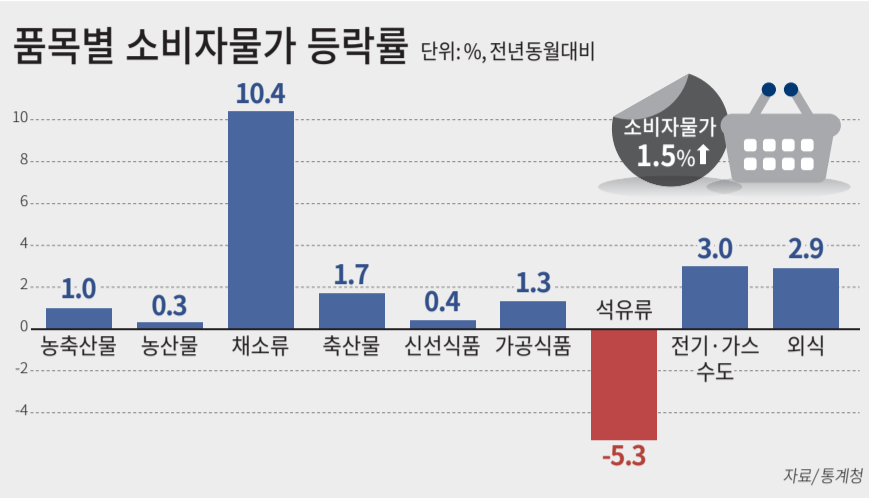
물가 3개월째 1%대... 채소류 10% 급등 '체감물가와 괴리'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석유류 가격 하락에 물가 0.22%p ↓
채소류는 3개월째 10%대 상승폭
1~11월 누계 상승률 2.3% 집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째 1%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채소류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등 실제 구매 시 체감하는 물가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5% 상승하는 데 그쳤다. 9월(+1.6%)과 10월(+1.3%)에 이어 석 달 연속 1%대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3월(3.1%)에 3%대에 달한 뒤 4월(2.9%) 2%대로 내려섰다. 이후 5월부터 8월까지 2%대를 유지한 뒤 9월부터는 1%대로 안



정화한 것이다.

국제유가의 내림세에 따라 국내 석유류 가격도 하락한 영향이다. 하지만 김장철을 앞둔 시점에 채소류 물가는 10% 넘게 올랐다.

지난달 채소류(+10.4%)는 0.15%포인트(p) 수준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9월(11.5%)과 10월(15.6%)에

이어 3개월째 10%대의 상승 폭을 나타냈다. 다만, 기상여건 개선 및 출하량 확대 등으로 오름폭은 둔화했다.

품목별로는 ▲무(62.5%) ▲호박(42.9%) ▲오이(27.6%) 등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뛰었다. 공미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여름철 고온 현상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채소 가격이 올랐

던 영향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도시가스(7.0%), 지역 난방비(9.8%) 상승도로(3.1%)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3.0%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2.1% 올랐다. 이 중 외식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2.9%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97%p 끌어올렸다.

반면,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은 5.3%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22%p 낮추는 효과를 냈다. 신선식품도 0.4% 오르는 데 그치며 32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1.6%로 석 달 연속 1%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9%였다.

공 심의관은 "채소류 가격이 오르고, 과실류와 석유류 가격이 내리는 등 전

반적인 흐름은 지난달과 유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석유류 감소 폭이 축소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올해 1~11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물가 둔화 흐름에도 물가 수준 자체는 높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40으로 2020년(100) 대비 14%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월 소비자물가는 이상기후,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안정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1면 '美, 對中 첨단반도체...서 계속

고양시청역~새절역, 20분대로 확 빨라진다

국토부 '고양은평선' 기본계획 승인
2031년 개통 목표, 사업비 1.7조 투입
지역 만성적 교통혼잡 완화 기대감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고양은평선'이 만들어진다. 대중교통으로 50분은 가야했던 고양시청역~새절역 구간이 20분대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기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15.0km로 건설한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조7167억원을 투입해 8개 정거장을 건설한다. 열차는 고무차륜(K-AGT) 방식의 경전철을 운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곧바로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해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입장이다. 목표연도 개통을 지키기 위해 사업초기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완화할 것"이라며 "기존에는 고양시청역에서 새절역까지 기존 버스로 50분, 승용차로 35분 소요됐지만 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20분대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고양은평선이 2031년에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고, 철도와 연계되는 도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확충을 통해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광역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고양 창릉지구와 함께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 '강동하남 남양주선(9호선 연장)'과 하남 교산지구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도 조속히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승인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中 D램 1위 기업 2세대 HBM 양산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이번 반도체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수준이 격상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HBM을 분석, 분해해 자체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D램 1위 기업인 C XMT(창신메모리)가 이미 2세대 HBM 라인을 구축하고 양산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미 DDR4를 저가로 공급하며 전체 D램 가격을 흔들려 놓은 상황에서 고급형 시장까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반도체 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김서현 기자 seoh@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하나된 대구경북이 만드는 대구경북특별시!

수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위상을 갖게 됩니다.

- 전국 1위 국토면적 20%
- 전국 3위 인구 500만명
- 전국 3위 GDP 178조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영일항만

행정통합 왜 해야 하나요?

대구경북 분리 이후 40여년 지난 지금, 수도권 인구는 2배로 ↑, 대구경북 인구는 오히려 감소 ↓

"대구·경북이 하나되어 발전해야 합니다."

구분	1980년	변화	2024년
대한민국	3,744만명	37% ↑	5,127만명
수도권	1,330만명	96% ↑	2,605만명
대구경북	495만명	1% ↓	490만명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대구경북의 규모와 경쟁력 강화

- ◎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됩니다.
- ◎ 대구경북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 ◎ 통합신공항, 물문제 해결 등 대구경북이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교통망 확대

1. 대구경북 순환 철도전철망
2. TK-PK 초광역 철도전철망
3.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서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
4. 동서3축 고속도로 (부주~성주~대구)
5. 남북9축 고속도로 (영천~청송~영양~봉화~양구)

권한과 재정증가로 품으로의 주민생활

- ◎ 200개 이상의 국가사무 권한이양과 특례로 자치권이 강화됩니다.
- ◎ 각종 재정·세제 이양으로 지방재정이 약 2조원 증가합니다.
- ◎ 산림, 하천 관리 권한 이양으로 재해재난으로부터 더 신속히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보험산업, 내년 CSM 하락 전망... '저성장 뉴노멀' 위기

(보험계약마진)

내년 수입보험료 2.4% 증가 전망
당국, 계리적 가정 강화 등 규제
"CSM, 기존대비 1~9% 가량 줄 것"

내년도 보험산업의 전망이 어둡다. 올해까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해 온 보험업계가 수입보험료 감소에 따른 성장을 둔화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규제에 따른 보험계약마진(CSM) 하락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보험산업은 성장성 둔화, 수익성 악화, 건전성 악화 등이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규제 영향까지 고려하면 실제 악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2025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2.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4.3%, 0.3% 증가가 예상된다. 생명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감소로 0%대 성장률에 불과하다는 분석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보험산업의 위기 이미지

이다. 초회보험료는 건강보험의 증가에도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감소로 전년 대비 9.2% 감소할 전망이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경영환경 전망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을 종합해 보면 성장성 둔화, 수익

성악화, 건전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전망에 반영하지 않은 규제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수치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규제 역시 보험산업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계리적 가정 강화에 따라 CSM 감소는 불가피하다. 최근 금융당국은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무·저해지보험, 단기납 종신 등 계리적 가정을 강화했다.

계리적 가정 강화에 따라 보험사는 무·저해지보험(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의 경우 이전보다 낮은 해지율 수준을 사용해야 한다. 단기납 종신보험도 저축성보험 해지율 등을 준용해 30% 이상의 추가 해지를 설정해야 한다. 해당 개선안은 올해 말을 기점으로 적용된다.

설용진 SK증권 애널리스트는 "기존보다 현저히 보수적인 가정이 적용됨에 따라 CSM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개선안 적용 시 BEL(최선추정부채)을 증가시키는데 반대급부로 이익계약이라면 CSM이 감소할 것"이라며 "기존 CSM 대비 적게는 낮은 한 자릿수(1~3%), 많게는 높은 한 자릿수(7~9%)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CSM 감소는 보험사에 특히 악영향을 끼친다. 주요 보험사의 보험손익에서 CSM 상각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CSM 하락에 따라 영업이익도 같이 감소해서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합산한 영업이익 기준 올해 상반기 CSM 상각익의 비중은 대형 손보 3사가 40%대, 삼성생명과 동양생명이 50%대, 한화손보가 61%, 한화생명이 98%로 나타났다.

만약 CSM 잔액이 1% 감소한다면 2025년 영업이익은 손보 4사 및 삼성생명 평균 0.5%, 한화생명 0.8%, 동양생명 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계리적 가정 개선안 등의 불확실성 요인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악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하기엔 영향을 면밀히 예상하기가 아직은 어렵다. 최소한 2025년 1월의 금리기간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지갑 닫는 1인 가구... 韓 소비구조 '흔들'

다인 가구 비해 경제형편 취약
생활비·주거비 부담 등 영향

1인 가구가 국내 소비 지출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지만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우리 경제의 소비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은행이 펴낸 'BOK 이슈노트-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소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5.5%로, 가구 원수 기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17년 28.6%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통계청의 2022년 장래가구추계에서 오는 2030년 1인 가구 비중을 35.6%로 전망했지만 이미 지난해 해당 수준에 도달할 만큼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1인 가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 1인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은 지난 10년간 빠른 속도로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체 소비지출의 약 20%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소득, 자산, 고용상황 측면에서 살펴본 1인 가구의 경제 형편은 대체로 다인 가구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이다. 1인 가구는 청년과 고령층의 비중이 높는데 연령별로 나눠보면 청년층 1인 가구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컸고, 고령층 1인 가구는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취약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소비성향도 악화되고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은 "팬데믹 이후 1인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은 여타 가구보다 더 크게 악화되면서 경제전체의 소비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소비성향 둔화는 우리 소비의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9~2023년 가구원 수별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 변화 조사에서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 감소율은 5.8%(0.78→0.74)로 가장 높

았다. 이어 ▲3인 가구 -4.3%(0.69→0.66) ▲2인 가구 -2.5%(0.71→0.69) ▲5인 이상 -1.8%(0.77→0.76) ▲4인 가구 -0.5%(0.74→0.73)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악화되는데는 1인 가구의 소득·자산 등 경제 형편이 취약한 상황에서 팬데믹 기간중 ▲주거비 상승 ▲생활비 부담 증가 ▲임시·일용직 중심 고용 충격 ▲위기에 따른 소득 충격 등의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수기반을 튼튼히 하려면 1인 가구의 주거·소득·고용 안정을 위한 연령대별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재호 과장은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높은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한 주거 안정대책이 절실하다"며 "고령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열악한 소득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빈곤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등 해외사례처럼 전체 취약 계층을 포괄하는 정책 틀 안에서 1인 가구 문제를 균형감 있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이승용 기자 ls2665@

스тей킹·에어드롭 가이드라인 미비 "정부-정치권, 제도적 보완 서둘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업계 "무리한 과세, 위험한 상황 초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면서 과세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게 됐다. 시장에선 제도적 보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의 과세를 2027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 (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소득이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의 투기적 성격을 이유로 과세 유예에 반대했고, 기본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뒤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고수했지만 입장을 선화하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두 차례 연기된 데 이어 2025년 시행 계획도 2027년으로 미뤄지면서 총 세 차례 연기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2년 안에 제도정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구체적인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률, 제도적 기

반 등이 미비한 상태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1단계가 시행된 했지만 투자자 보호 중점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은 없는 상태다. 실질적 규제가 담겨 있지 않아 반쪽짜리 법이란 지적이다.

다양한 사업 모델과 새로운 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법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중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현재로서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추적하기 어렵다. 주식시장과 다르게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초단위로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제시한 취득원과 실질적 소득을 산정하는 방안이 따라가지 못한다.

또한 해외거래소 등을 통한 경우 최초 취득가격을 추적하기 어렵고 여러 거래소를 거칠 경우 지갑 주소와 거래내역을 거래소에서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무엇보다도 스테이킹(예치), 에어드롭(무상 지급), 채굴 등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과세안의 경우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탈세에 대한 위험도 문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도적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과세는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주요국들은 유연하게 과세 비율을 설정해 미국은 10~37%, 일본 15~55%, 영국 10~20%, 호주 5~40% 수준으로 스테이킹, 에어드롭, 채굴 등에 대한 과세 비율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년 유예가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의 논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방어 양식 등 물류 루트 확대... 가격 경쟁력 높인다

>> 1면 '대량구매 등 규모의 경제'서 계속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 확대를 통해 단위당 비용을 낮추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대량 구매와 생산공정의 자동화, 전문화를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이마트는 지난 7월 이마트와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의 매입 조식을 통합했다. 두 채널의 구매 물량을 결합해 대량 매입을 추

진함으로써 구매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급업체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며,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량 공급 확대를 위해 이마트는 신규 농가 및 양식장과의 계약도 늘리고 있다. 특히 해산물과 과일 등 식품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철 방어를 겨울까지 축양하는 방어 양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통영, 고성, 거제, 사천 등지에 새로운 물류 루트를 확대했다. 또한,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전문 바이어들이 전국 산지를 직접 찾아 신규 농가를 발굴하고 있다는 게 이마트 측의 설명이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이마트의 이 같은 규모의 경제 전략은 코스트코, 이케아와 같은 대형매장이 접근성 높은 곳에서 대량 상품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과 비슷한 것으로 읽혀진다"며 "규모의 경제는 기술적 상태, 시장 크기, 접근성, 규모 차이 등에 따라 그 효과가 결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트럼프 관세·中 추격까지... 삼성·LG, TV 점유율 방어 나선다

프리미엄 TV 시장 격변 대응책

삼성, Neo QLED·OLED 시장 선도
AI 기술 활용,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LG, 웹OS·콘텐츠 플랫폼 수익 창출
고객중심 솔루션 새 성장 동력 확보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하며 글로벌 시장 선두를 탈환한 데 이어 한국 기업들의 주력 제품인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2, 3위를 모두 차지하며 LG전자를 밀어냈다. 여기에 노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 공장을 운영 중인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가격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 이 밖에도 북미를 중심으로 플랫폼 TV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TV 시장의 출혈 경쟁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웹OS 기반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보급형 TV 라인업도 출시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3일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 함이 처음으로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을 넘어섰다. 이번이 중국 3대 TV 브랜드인 TCL·하이센스·샤오미의 올해 3분기까지 전체 TV 시장 점유율(수량 기준) 합은



삼성전자 Neo QLED 8K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30.1%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 삼성전자(18.1%)와 LG전자(11.3%)를 합한 점유율 29.4%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간 꾸준히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만 해도 점유율이 21.9%였지만, 올해 18.1%로 떨어지며 점유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LG전자는 2020년 글로벌 판매량 순위 2위였지만 올해는 4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두 회사의 주력 제품인 프리미엄 TV 시장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도 중국 기업들이 바짝 뒤쫓아오며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1위를 지키고 있지만 2, 3위는 모두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며 LG전자를 밀어낸 것.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에 따르면 프리미엄 TV 모델은 출하량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리미엄 모델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퀀텀닷 액정표시장치(QD-LCD)·미니 LED 등으로 구성된 TV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30% 점유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43%를 달성했던 1년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반면 중국 하이센스와 TCL은 올해 3분기 프리미엄 시장에서 LG전자(16%)를 밀어내고 각각 2, 3위에 올랐다. 하이센스와 TCL은 지난해 3분기에 각각 14%, 11%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는데, 이번 3분기에는 24%, 17%로

점유율이 급증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 파워가 글로벌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이슈까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멕시코에 가전 공장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케레타로에서 가전 공장을, 티후아나에서 TV 공장을 각각 운영 중이다. LG전자는 레이노사(TV), 몬테레이(냉장고), 라모스(전장) 등에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서 두 회사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경제지마켓워치는 “프리미엄 제품 구매 계획이 있다면 관세 정책 적용 전인 이번 쇼핑 시즌을 주목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수입품 관세 정책이 발표되면 제품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북미를 중심으로 플랫폼 TV 사업도 급성장하면서 TV 시장의

출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신생 기업 텔리(Telly)는 지난해 광고를 시청하면 55형 TV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옴디아 풀그레인 연구원은 최근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TV 시장의 권력이 브랜드에서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점유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보급형 TV 라인업을 확대하며 초대형 TV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난 3월 보급형 TV 라인업인 ‘크리스탈 UHD’에 98인치 제품을 출시하며 국내 소비자에게 대형 TV 구입 유인도를 높였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98인치 QLED(Q80C)를 4000달러 할인한 3999.99달러에 판매하는 등 할인 폭을 높이고 있다. 또 플랫폼 TV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타이젠OS가 탑재된 TV를 통해 FAST 서비스 ‘삼성 TV 플러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전자는 웹OS(webOS)를 앞세워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본업인 전자제품 제조와 함께 직접 콘텐츠 제작에 나서는 한편,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HE사업본부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이라는 지향점에 맞춰 MS사업본부로 변경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엔솔, GM과 각형 배터리 공동개발

미국 얼티엄셀즈 3공장 인수 검토 글로벌 전기차 시장 지배력 확대

LG에너지솔루션이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 투자해 미국 미시간주에 건립 중이던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 이는 북미 공장 가동률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GM와 손잡고 각형 배터리를 개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GM은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 건설 중인 합작법인 얼티엄셀즈의 배터리 제3공장 지분을 합작 파트너사인 LG에너지솔루션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M은 “랜싱에 거의 완공돼 가는 얼티엄셀즈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조인트벤처(JV) 파트너사인 LG에너지솔루션 매각하기로 구속력 없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북미 공장의 투자 및 운영 효율화, 가동률 극대화 등을 위해 미국 미시간주 랜싱 지역에 위치한 얼티엄셀즈 제3공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확정되는 대로 공시 등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두 회사는 현재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다. 인수가 이뤄지면 LG에너지솔루션은 3공장을 북미 주요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얼티엄셀즈 3공장은 총 26억달러(약 3조5650억원)가 투입되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다. 지난 2022년 착공해 올



LG에너지솔루션·GM 합작 얼티엄셀즈 오키오 1공장 전경.

/LG에너지솔루션

해 하반기 준공하고 내년 초 1단계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속도 조절에 나서며 얼티엄셀즈 3공장 가동도 지연됐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제3공장 인수가 실현되면 해당 공장의 생산분을 제너럴모터스(GM)가 아닌 다른 곳에 납품할 수 있다. GM은 3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액 약 10억달러(약 1조4065억원)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1위 자동차 업체 GM과 ‘각형 배터리 및 핵심 재료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발된 각형 배터리는 향후 GM의 전기차에 탑재된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은 전세계 배터리 업체 중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 모든 배터리 폼팩터를 포트폴리오로 갖춘 유일한 기업이 됐다.

납작한 상자 모양의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캔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셀 자체의 강성이 높아 배터리 모듈, 팩 단계에서 구조적인 간소화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파우치형, 원통형뿐 아니라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도 내재화된 개발 및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각형 패키징 기술을 비롯해 설계 및 공정 분야에서도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극 생산 및 스테킹 공법 기술력은 각형 배터리 개발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함으로써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 업계 유일한 ‘3대 폼팩터(all three form factors)’ 전략 체계를 갖췄다. 미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또 한 번의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셀트리온, 서정진 소유계열사 ‘부당 지원’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4억 부과
의약품 보관용역·상표권 부당 제공

셀트리온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3일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에 합리적 사유 없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

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16년부터 대기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 회장이 88.0%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 무상 사용하도록 했다. 또 2016년부터는 해당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도 무상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감지능”으로 차별화된 스마트 라이프”

LG, CES 2025서 미래 청사진 제시

LG전자가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공감지능과 함께 하는 일상의 라이프스 굿’을 주제로 회사 혁신과 비전을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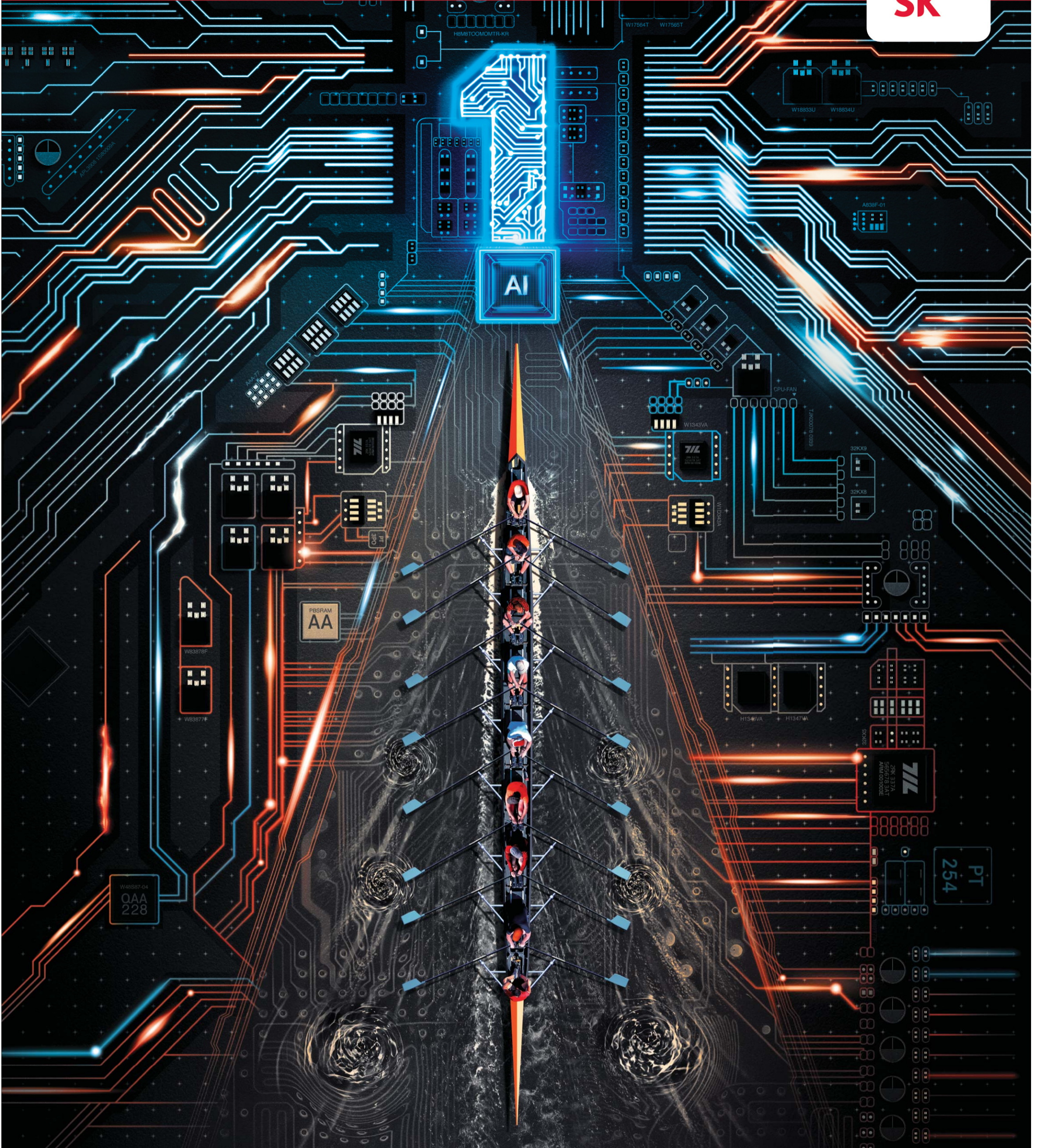
LG전자는 3일 CES 2025 개막에 앞서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 ‘LG 월드 프리미어(LG World Premiere)’를 알리는 초청장을 공개했다.

올해는 조주완 LG전자 CEO(최고경영자)가 현지시간 내년 1월6일 오전 8시

부터 만달레이베이(Mandalay Bay) 호텔에서 대표 연사로 무대에 오른다. LG전자 AI는 ‘고객을 더 배려하고 공감해 보다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을 표방한다.

조 CEO는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사 관계자 등 1000여명을 현장에 초청한 가운데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는 LG전자가 AI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고객의 다양한 경험과 공간을 연결·확장하며 일상을 변화시키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원팀으로 AI시대를 여는 FIRST MOVER

“예산안 철회·사과 먼저” vs “민생·경제 위한 예산안 필요”

(興)

(野)

與野 강대강 대치에 협상 난항
우원식, 10일까지 합의시한 제시
추경호 “민주당 사과·철회 없으면
어떤 추가협정도 응하지 않을 것”
박찬대 “민생 포함 예산 24兆 삭감
예비비는 4.8兆 편성… 엉터리 예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10일로 제시한 가운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협상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의 철회 및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에 더 진정성을 보인 증액 예산안을 정부가 마련해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예산안 협상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어떤 추가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막바지

예산 협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뒷구멍으로 예산 삭감안을 만들고 단독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술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운운하면서 증액을 이야기할 거면 왜 예산을 단독 강행 처리했나”라며 “처리하기 전에 여야간 협상이 이뤄져야 했다. 그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있었던 국회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의 예산안 합의 시한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감액 예산안 사과와 철회) 조건이 선

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자체가 ‘엉터리 예산’이었다며 어려움에 빠진 정부가 민생·경제 분야를 더 살핀 증액안을 가져와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이 포함된 사업예산 24조원을 몽땅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한 게 민생경제 예산인가”라며 “이런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된다”며 “진짜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회생을 바라한다면, 열토당도않은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민생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확인되지 않겠다. 그럴 자

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는 검찰이나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삭감해야 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2조원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한 전체적인 콘셉트는 구체적인 소명과 예산에 대한 용도처가 소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삭감하겠다는 걸 미리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밑에서부터 경제가 돌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하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9500억원 정도를 국가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이고 인공지능(AI) 예산을 1조원 정도 확보해서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상법개정 논의’ 정책 디베이트 참여

상법·자본시장법 함께 개정해서
주주권리 보호 대원칙, 보완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당이 추진하던 경제 정책을 반복하는 결정을 연이어 내놓는 가운데, 4일엔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책 디베이트(토론)에 참여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차 정책 디베이트를 연다.

1차 정책 디베이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당 내 의원들이 나뉘어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2차 정책 디베이트에는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고 오기형 위원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은 경영자 측 6~7인과 투자자 측 6~7인이 상법 개정과 관련한 찬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원인은 후진적인 기업기배구조에 있다며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선 이사 총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해 재벌 일가와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기업 경영 전반에 차질이 생기고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일각에선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을 폐지하거나 유예한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또 다시 상법 개정도 주저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2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상법 개정 수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상법은 전체 법인이 대상이지만 자본시장법은 상장 법인이 대상이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긴 한데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며 “상법 개정이 아니라 공개 등록된(상장)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쪽(여당)으로 키를 넘기면 안 할 것이다.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999%”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 총실 의무를 전체 법인이 아

나라 상장 법인에 한정하는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공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으로 주주권리 보호의 대원칙을 세우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1500만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와 저평가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채 해병 국정조사 與 참여하며 ‘첫발’

국민의힘이 고(故)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진상규명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2023년 7월 우리 곁을 떠난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상병 의원을 국조위(여당 측) 간사로 하고 총 7명의 국민의힘 의원께서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정쟁에 악용할 목적이 다분하다”며 “이 사건은 경찰의 상세 수사 결과 발표에 이어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이고 국회도 입법 청문회, 탄핵 청문회, 상임위 현안 질의, 국정감사를 통해 솔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비극적 활동을 정쟁용 불쏘시개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시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채 상병의 비극과 유가족의 슬픔을 정쟁에 이용할 공리만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찍이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채 해병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기왕 참여하기로 한 만큼 국정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韓-키르기스스탄,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양국 정상회담서 경제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사디르자파로프 키르기스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외교 관계 수립 이래 지난 32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룩해 온 양국 간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다방면에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따르면 양국은 투자

프로젝트, MOU(업무협약), 합작사업 등 경제협력을 확대 및 발전하기로 했다. 키르기스공화국 측은 에너지, 관광, 교통, 농업, 수자원 및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측에 제안했다. 또한 양측은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보전, 재생 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등 자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의 서명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키르기스공화국이 ‘그림자’ 경제로부터 전환하는 것을 촉진할 ‘BC카드’ 및 ‘스마트로’(이상 KT 자회사)와 키르기스스탄의 ‘CJSC 인터뱅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키르기스스탄 공동성명 및 문건 서명식에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로세싱센터’ 간의 합작사업 출범도 반겼다.

두 정상은 공공행정, 농업, 보건·위생 및 환경 등 분야에서 키르기스공화국의 전략적 개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의 성공적 이행을

지지했다.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 ‘공공기관 전기차 전환 사업’ 및 ‘농산물 가치사슬 강화 사업’의 출범 및 이행을 평가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약속** 100호 어린이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희망이 처음 출발한
2019년 거제 1호 아주하나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열릴 때마다
아이들의 꿈도 자라나고

드디어 2024년 봉화 100호 석포하나어린이집에
웃음이 하나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그 날까지
하나금융그룹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지원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이환주가 일군 KB라이프생명, 내년 수확 시험대 오른다

(초대 KB라이프생명 대표이사)

이 대표, 차기 국민은행장 내정
요양사업 선두자리로 성과 입증
차기 KB라이프 수장 관심 집중
업계 경쟁심화 속 내년 성과 기대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타워 전경.

/KB라이프생명

출범 후 2년이 지난 KB라이프생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성장 기반을 다졌던 이환주 대표이사가 차기 국민은행장으로 내정되면서 KB라이프생명이 진정한 시험무대에 오를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이사는 차기 KB국민은행장으로 내정됐다. KB금융 계열사 CEO가 은행장이 된 첫 사례다.

지난 27일 KB금융지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환주 후보 추천은 KB금융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은행장이 된 최초 사례로 조직의 안정 및 내실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지주, 은행, 비은행 등 KB금융 전 분야를 두

루 거쳐 탁월한 성과를 입증한 경영진이 최대 계열사인 은행을 맡아 은행과 비은행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KB금융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KB라이프생명의 초대 수장으로 KB금융과 푸르덴셜생명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초엔 통합법인 출범 1년여 만에 숙원사업인 전산통합 작업을 완성했다.

또한 KB라이프생명은 생보업계 요양사업 진출 선두주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요양사업 자회사인 KB골드라이프케어를 인수하고 ▲강동케어센터 ▲위례빌리지 ▲서초빌리지 ▲평창카운티 등을 개소했다.

이 대표의 역량을 바탕으로 KB라이프생명은 출범 후 연이어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7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주춤했으나 누적 보험손익은 2365억원으로 9.9% 성장했다.

보험계약마진(CSM)은 올해 들어 지속 상승 추세를 보인다. CSM은 새국제 회계기준(IFRS17)에서 도입된 미래 수

익성 지표다. CSM 잔액은 지난해 말 3조180억원에서 올 3분기 3조1653억원으로 4.9% 증가했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3일 "통합 이후 소폭 하락했던 실적이 현재 다시 반등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통합 출범했던 지난 2023년 4분기에는 순이익이 적자를 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너지가 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성장 기반을 다졌던 이 대표가 떠나면서 KB라이프생명이 차기 대표이사 와 함께 결실을 수확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KB라이프생명의 차기 대표이사 관련 구체적인 하마평은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출범 후 연착륙에 성공한 KB라이프생명의 진정한 시험무대는 내년이 될 것으로 본다. 이 대표가 떠난 후 내년 KB라이프생명이 본격 결실 수확에 나서는데 있어 여러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 분석이다.

사업에서는 KB라이프생명이 주력하는 요양사업을 둘러싼 생보사간의 경

쟁이 심화하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은 오는 2025년 은평, 광교, 강동 지역에 도심형 노인요양시설 추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신한라이프가 첫 요양시설을 개소하면서 요양사업 관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업황 측면에서는 생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험산업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규제 등이 실적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적인 과제에도 KB라이프생명은 내년 본격적인 결실 수확에 나설 전망이다. 이환주 대표이사가 기반을 다졌다면 차기 대표이사와 함께 그동안 맺은 결실을 수확할 시기라는 분석이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자산 규모 성장에 따라 결실을 수확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면 새로운 생각이 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전용 85㎡ 초과 '중대형' 입주절벽 온다

서울 2년후 물량, 올해의 26% 수준
대형평형 급감에 몸값 더 높아질 듯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타입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대형 평형이 부족해 앞으로 몸값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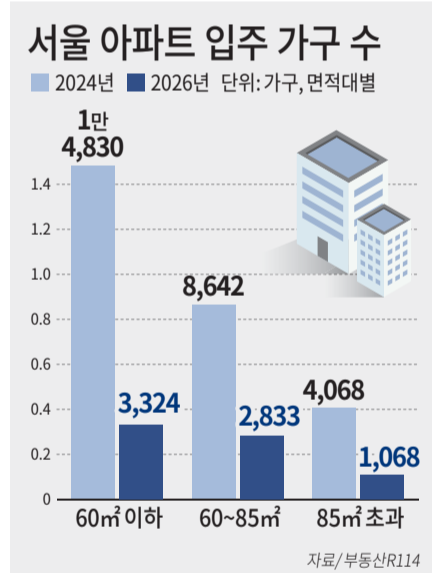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7670가구에서 내년 3만5915가구, 2026년에는 7983가구가 예정돼 있다. 내후년부터 아파트 입주 감소가 본격화된다.

이 가운데 전용 85㎡ 초과 타입 입주 물량은 올해 4068가구에서 내년 3124가구로 23.2% 감소한다. 2026년에는 85㎡ 초과타입이 1068가구로 급감해 올해 입주량의 26%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1인당 주거면적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당 주거면적은 34.8㎡로 통계가 첫 공개된 2006년 26.2㎡보다 8.6㎡ 가량 늘어났다.

올해 서울시 '85㎡ 초과 주택형'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60.63대 1로 나타났다. ▲ 2023년(47.66대 1) ▲ 2022년(31.14대 1)과 비교해 더 치열해졌다.

40평 이상 대형 아파트 거래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



를 보면 9월 기준 서울의 101㎡ 이상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은 16.54%에 달했다. 1월 기록한 13.84% 대비 2.7%포인트(p) 늘었다.

가격상승률도 뚜렷하다. 1월 첫째 주부터 11월 넷째 주까지 전용면적 102㎡ 초과~135㎡ 이하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4.23%, 135㎡ 초과 아파트는 5.49% 올랐다. 40㎡ 이하 소형이 1.30% 오르는데 그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중대형 아파트는 전형적인 베블런재(Veblen goods·사람들의 선호가 가격에 직결되고 가격에 따라 선호도가 올

라가는 재화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오르는 만큼 더 큰 관심을 받는 것"이라며 "선점 경쟁이 붙으니 상승폭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더샵스타시티'의 전용 100㎡는 지난 10월 18억5500만원으로 거래됐다. 6월 17억7500만원으로 거래된 이후 3연속 신고가 행진이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144㎡도 같은 달 41억4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서 정비사업 조합들이 중대형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평면이 클수록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고 아파트 고급화 이미지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대형 면적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터미널 자리에 들어서는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은 98㎡ 346가구, 118㎡ 84가구를 분양한다. 서초구 방배동에서는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전용 144㎡ 2가구 청약 받는다.

/전지현 기자 jhw13@

카드사 기업정보조회업 진출 발판 마련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국회 통과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사의 기업정보조회업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사)는 데이터 활용 역량을 발휘해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정보조회업을 여

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업무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카드사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기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이다. 그러나 카드사 경영업무에 기업정보조회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라 여신사가 데이터 기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하고 영세 법인 등에 관한 금융 접근성과 포용성이 높아질 것이라 관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데이터 기반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레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물의 정원' 테마의 수경 시설.

/삼성물산

삼성물산, 세계적 조경설계 그룹과 협업 한남4구역 서울광장 5배규모 공원 제안

디즈니랜드 조경 기획 SWA와
총 1만평 규모, 5개 공원 계획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를 놓고 삼성물산이 한강 조망에 이어 서울시청 잔디광장 5배 규모의 공원까지 제안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3일 세계적인 조경설계 그룹인 SWA와 협업해 남산과 한강 사이 위치한 한남4구역의 입지적 강점은 살리고, 경사 지형의 단점을 극복해 입주민들의 주거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SWA는 두바이 부르즈할리파와 미국 디즈니랜드 등 다양한 월드 랜드마크 조경을 기획하고, 하얏트와 리츠칼튼 등 세계 메이지 호텔 브랜드와 지속적으로 협업 중인 미국의 조경 전문 디자인 그룹이다.

삼성물산은 한남뉴타운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평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한강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는 열린 주거동 배치와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주거동의 위치를 조정했다.

정비계획상 획지 구분에 따라 나뉘는 5개 블록의 중앙광장 크기를 모두 합하면 약 1만여평의 대규모다. 각각의 중앙광장을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테마를 부여해 차별성을 높였다.

먼저 한강에 인접한 블록은 '물의 정원'을 컨셉트로 유려한 곡선의 수경 시설을 조성해 마치 한강의 물을 끌어들이 단지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의 공간으로 설계했다.

여기에 원형타워의 디자인 모티브인 수련을 테마로한 물놀이터와 계절마다 변화하는 다채로운 꽃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예술 정원을 선보인다.

남산과 가까운 북쪽 블록에는 높이차를 이용한 워터 베일과 수경 정원이 자리해 스카이라이프 위에서 바라보는 남산 조망과 그 아래로 낙수가 떨어지는 폰드가 어우러져 압도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마지막으로, 남산과 한강을 잇는 블록의 중앙에는 웅장한 벽천의 폭포를 통해 남산 산자락의 비경을 재현하고, 레미안 대표 조경 상품 '네이처갤러리' 가든을 옮겨놓은 시그니처 정원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숲을 느끼며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을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남산과 용산공원, 한강이 어우러지는 자연 그대로의 단지를 재현하기 위한 조경 계획을 통해 도심속 단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45%의 조경률을 적용했으며, 단지 전체 조경 시설의 녹지만 약 2만여평에 달한다.

/안שמ 기자 smahn1@

현대차그룹, 인도에 혁신센터 세운다... 5년간 100억 투자

인도 친환경차 시장 공략 속도 IIT 등 3개 대학 업무협약 체결 배터리·전동화 분야 공동 연구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향후 5년간 100억원을 투자해 현지 대학과 배터리·전동화 분야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한다.

현대차·기아는 3일(현지시간) IIT(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인도 공과대학교) 3개 대학과 함께 '현대 혁신센터' 공동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현대차·기아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 성낙섭 전무를 비롯해 인도권역기획실 류재완 상무, 인도기술연구소장 이근한 상무 등 회사 관계자와 IIT 델리의 랑간 바네르지 총장, 비자야 케탄 파니그라히 학생처장 등 학교 관계자가 참석했다.

IIT는 1951년 설립된 인도 최고 수준의 공학 교육기관으로, 인도 전역에 걸쳐 23개 캠퍼스를 운영하며 혁신적



현대자동차·기아는 3일(현지시간) IIT(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인도 공과대학교) 3개 대학과 함께 '현대 혁신센터' 공동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현대차 인도권역기획실장 류재완 상무, 인도기술연구소장 이근한 상무,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 성낙섭 전무, IIT 델리 총장 랑간 바네르지 교수, IIT 봄베이 학장 사친 C 팻워드한 교수, IIT 마드라스 학장 마누 산타남 교수, IIT 델리 학장 프리티 란잔 판다 교수 /현대자동차그룹

인 연구와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공동 연구에는 특히 인도 학계 내 영향력이 우수한 ▲IIT 델리 ▲IIT 봄베이 ▲IIT 마드라스 등 최상위 3개 대학이 참여한다.

현대차·기아는 IIT 3개 대학과 함께 현대 혁신센터를 설립, 2025년부터 5년

간 약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배터리·전동화 관련 연구를 공동 수행하며, 소프트웨어 및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협력 분야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 혁신센터는 인도 현지에 특화된 산학 협력 모델로서, 기업 및 동문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는 IIT 대학 내 전문

연구조직 'CoE(Centre of Excellence)'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IIT 델리에 서만 22개의 'CoE'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협력은 단발성 기술 과제 중심으로 진행됐던 기존의 산학 방식과 달리, 우수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수요에 기반한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현대 혁신센터를 통해 IIT의 우수 교수진과 공동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배터리·전동화 분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신진 교수진으로부터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공모 받아 현지 시장에 특화된 기술 및 기능을 발굴하는 등 인도 내 미래 기술 핵심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 성낙섭 전무는 "이번 현대 혁신센터를 통해 인도 최고의 공과대학에서 글로벌 산업을 이끌어가는 우수한 인재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현대차·기아는 인도 학계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동반 성장하며 배터리·전동화 분야의 첨단 기술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산학 협력 추진이 최근 현대차 인도법인 IPO를 통해 마련한 자원의 현지 재투자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강남 한복판에 '사이버트릭' 등장 글로벌 전기차, 韓 시장 진출 고삐

테슬라, 7일 강남 스토어 오픈 모델 Y 프로모션 등 특별 혜택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BYD가 한국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새로운 전시장을 오픈하고 고객 소통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테슬라는 온라인 판매와 OTA(Over-the-air)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 만큼 이번 오프라인 전시장 오픈에 두고 전기차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오는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국내 8번째 전시장인 '강남 스토어'를 오픈한다. 신사와 여의도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오픈한 테슬라 전시장이다.

강남 스토어는 약 480㎡(150평) 규모로 모델S, 모델X, 모델3, 모델Y와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릭' 등 테슬라의 5개 모델을 모두 전시한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테슬라 코리아 강남 스토어 전경.

모델3의 바디(골격)와 세시(뼈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입구에 차량의 골조를 전시한 것은 테슬라 차량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전시장 안으로 이동하면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 사이버트릭 등 테슬라 전 모델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가수 지드래곤이 타서 화제가 된 테슬라 사이버트릭을 직접 보고 탑승해 볼 수 있다.

강남 스토어를 찾는 고객은 테슬라 모델을 타고 한강을 낀 다양한 시승 코스를 체험할 수 있다. 맞춤형 구매 상담 서비스와 최고 인기 모델인 모델Y에 대

한 연말 특별 프로모션도 제공한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코리아가 국내 전시장 오픈을 통한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선 것과 관련해 BYD에 대응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BYD코리아는 내년 초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테슬라코리아 관계자는 "자동차 시장에 다양한 전기차가 등장하면 고객들이 다채로운 채널을 통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침체된 전기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중점으로 기대했다.

/양성운 기자

두산에너지빌리티, 양수발전사업 본격 추진

"무탄소 발전 솔루션 제공 최선"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국내 양수발전사업 시장을 공략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국내 양수발전사업 참여에 본격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등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2038년까지 21.5GW(기가와트)의 장주기 에너지저장시스템(이하 ESS, Energy Storage System)이 필요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ESS로 평가받는 양수발전의 향후 건설될 설비용량은 5.7GW(총 9기)에 달한다. 이 중 첫번째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3년 만에 충북 영동군에 500MW(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흥천, 포천, 합천 등 다수의 양수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수 조원 규모의 주

기기 발주가 예상된다.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는 ESS로,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의 저렴한 전력을 이용하거나 주간에 태양광으로 발생하는 여유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댐의 물을 하부댐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한다. 또한 안정적인 에너지 저장·활용이 가능하며 수명이 길고, 화재 등 위험성도 적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ESS 설비 중 양수발전의 비중은 66.5%로 압도적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김종두원자력BG장은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며 "원자력을 비롯해 수소터빈으로 전환 가능한 가스터빈, 수력 및 양수발전의 주기기 공급까지 무탄소 발전 솔루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IG넥스원, 국방정보시스템 고도화 나서

군인공제회C&C 업무협약 체결

LIG넥스원이 국방 IT 기업인 군인공제회C&C와 국방정보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2일 군인공제회C&C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LIG넥스원 최종진 미래전략사업부문장과 군인공제회C&C 김원태 사장을 비롯해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우리 군의 정보 관리 및 공유 체계인 '국방정보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유지보수 등 관련



LIG넥스원 최종진 미래전략사업부문장(오른쪽)과 군인공제회C&C 김원태 사장이 2일 개최된 '국방정보시스템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업 전반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TUV라인란드 'CSMS 레벨3' 인증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업계 최고수준 차량 보안·관리

LG전자가 업계 최고 수준의 차량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전장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최근 국제 공인시험인증

기관인 TUV라인란드로부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레벨3 인증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CSMS 인증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인포테인먼트, 텔레매틱스 등 전장 제품의 설계, 개발, 소프트웨어,

생산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보안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모의 해킹 침투 테스트 등을 통해 철저히 역량을 평가한다.

LG전자는 지난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인증 받는 CSMS 레벨2를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실제 제품을 양산하고 있음을 인증 받는 레벨3를 받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이름·전화번호 노출, 90초면 끝’ AI 스마트안경, 규제 논란 확산

하버드생,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입증
사회적 감시·범죄 악용 위험 부상
법적·윤리적 규제 마련 시급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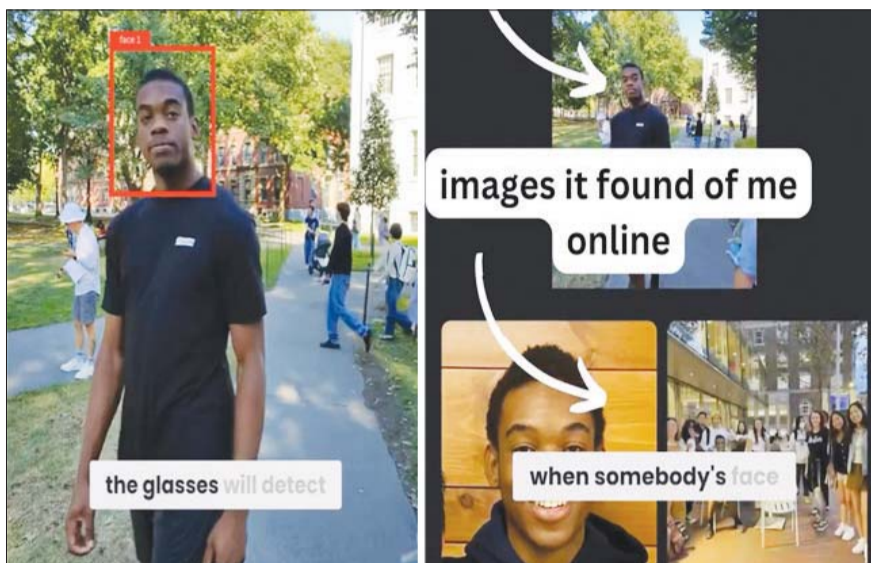
메타와 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T)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경을 잇달아 선보이며 기술 경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이 ‘AI스마트 안경’의 심각한 악용 가능성을 드러내며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하버드대 학생 안푸 응우옌과 케인 아르다피오노는 아이 엑스레이(I-Xray) 프로젝트를 통해 ‘AI스마트 안경’이 개인정보 침해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들은 메타의 AI 스마트안경 ‘레이벤 메타2’와 얼굴 검색 엔진 ‘뽀아이즈’ 기술을 결합해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거대언어모델(LLM)에 전송, 신원 정보로 가공된 뒤 아이 엑스레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송됐다. 모든 과정은 불과 1분 30초 만에 완료됐으며, 3명 중 1명꼴로 신상 정보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응우옌은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실험일 뿐”이라며 “학교 과제로 시도해 본 프로젝트라 상용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메타 대변인은 “현재 ‘레이벤 메타2’에는 얼굴 인식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실험에 사용된 기술은 특정 기기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기기에서도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하버드대 학생 안푸 응우옌과 케인 아르다피오노가 X(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 엑스레이(I-Xray)’ 프로젝트 시연 장면. AI 스마트 안경으로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의 얼굴을 인식, 검색 엔진과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해 온라인 상에 퍼져있는 신원을 파악한다. /AnhPhu Nguyen X 계정, 이혜민 기자 재가공

또 “레이벤 메타 안경은 녹음 중임을 알려주는 LED 표시등과 음성 명령 기능을 탑재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 역시 AI스마트안경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AI스마트 안경 기술의 법적·윤리적 공백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우드로 하르초그 보스턴대 교수는 “미국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얼굴 인식 기술로 사람을 식별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다”면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럽연합(EU) 데이터 보호 당국은 이미 2021년부터 이미 스마트안경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경고하며, LED 표시등만으로는 활용 여부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AI스마트안경의 딥페이크 기술 결합 가능성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를 활용해 타인의 얼굴을 조작하거나 위조된 영상을 생성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사회적 혼란과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전자프린터 재단(EFF)의 커트 옵살은 “스마트안경이 대중화될 경우 익명성을 파괴하고, 사회적 감시와 범죄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며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현재 AI스마트안경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메타의 ‘레이벤 메타2’는 연간 200만대 이상 판매가 예상되며, 중국 바이두와 샤오미 등도 관련 기술을 선보이며 시장에 진입했다.

이러한 성장세에 국내 전문가들도 법적 규제에 속도를 낼 것을 제안했다. 한 전문가는 “AI스마트안경은 혁신적 기술이지만, 강력한 법적·윤리적 프레임워크 없이 사용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규제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LGU+ “내비가 실시간 신호정보 안내”

인천시에 교통정보 통신망 구축

LG유플러스가 교통신호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을 인천광역시에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통신망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교통신호의 잔여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사고 위험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통신망은 단일 회선으로 교통신호제어기에서 수집된 교통신호 정보가 인천교통정보센터에만 전달됐다. LG유플러스가 새롭게 구축하는 통신망은 다회선으로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와 한국도로교통공단도 동시에 교통신호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신규 통신망을 통해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신호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래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신호제어

기를 통해 받은 신호 정보를 내비게이션 회사들과 공유해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교통신호의 잔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인천교통정보센터가 원격으로 무선 통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신고 없이도 관계실에서 상태를 확인해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무선통신망 구축이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는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이 신호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으면 신호를 인식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내년 1분기까지 전체 2400여개소의 교통신호제어기에 자사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사전 테스트를 거쳐 2025년 상반기에는 상용화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 CNS, 美서 스마트 빌딩 DX사업 본격화

소메라로드·마스턴아메리카와 협약

LG CNS가 미국 건물에 DX기술을 적용해 빌딩 자산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나선다.

LG CNS는 미국 부동산 전문 운영사인 소메라로드(SomeraRoad), 대체투자 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 미국 법인 마스턴아메리카(Mastern Americ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소메라로드는 부동산 투자 및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호텔, 물류센터, 산업단지 등의 부동산을 미국 전역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마스턴아메리카는 다양한 부동산 영역에 대한 투자, 개발, 운용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번 MOU를 통해 3사는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테네시주 내슈빌 등에 있는 스마트 호텔, 리조트와 스마트 멀티패밀리(다세대 임대주택) △스마트 상업용 빌딩 등에 DX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부동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LG CNS는 소메라로드와 마스턴아메리카의 부동산 개발 사업 내 DX기술 관련 전반을 맡는다. 먼저 LG CNS



LG CNS 최문근 전무(가운데)가 소메라로드 이안 로스(Ian Ross) CEO(오른쪽), 마스턴아메리카 오진석 대표이사(왼쪽)와 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 CNS

는 호텔, 리조트, 멀티패밀리, 오피스 등에 ‘시티허브 빌딩(Cityhub Building)’ 플랫폼을 적용해 스마트빌딩을 구현한다.

시티허브 빌딩은 LG CNS가 자체 개발한 빌딩 통합운영 플랫폼으로 빌딩, 공장 같은 대형 건물의 데이터 수집, 설비 관리·제어, 에너지 관리 등을 한번에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3사는 스마트 항공 인프라에 DX기술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도 논의하며 사업모델을 다각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사이버 공격 속도 빨라져 … 대응시간 부족”

SK실더스, ‘사이버 시큐리티’ 개최
AI 기술 활용 새 보안 체계 확장 필요

기업의 취약점을 발견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기간이 과거 2년 전 대비 30일 가량 단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SK실더스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SK실더스 사이버 시큐리티’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SK실더스의 전문가들이 올해의 보안 트렌드를 돌아보고 내년도 주요 위협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원표 SK실더스 대표는 “최근 사이버 위협이 경영 리스크로 자리잡은 만큼 사이버 보안 확충이 산업·안보·사회 안정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대비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AI가 만들어내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AI를 통해 가능한 모델로 사이버 보안 영역에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실더스의 분석에 따르면 사이버



홍원표 SK실더스 부회장이 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SK실더스 Cyber Security Media Day’에서 오프닝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SK실더스

공격자가 제조사·개발자 보다 먼저 발견한 보안 문제인 ‘제로데이 취약점’이 악용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2022년 768시간(32일)이었다. 그러나 단 2년 만인 올해는 114시간(4.75일)로 나타났다. 제로데이 발견 시점과 이를 이용한 공격 시간의 간격이 줄어들며 대응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다. 공격자가 감염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는 ‘원격 접근 트로이 목마’는 취약점 공개 5시간만에 악

용되기도 했다

이날 SK실더스가 공개한 올해 업종별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유형은 국내외 통틀어 공공 부문이 1위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공공·제조 분야가 18%였고 국외에서는 공공 부문이 30%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법무법인 등 서비스업 대상 기업을 향한 공격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올해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는 랜섬웨어 그룹의 전략 고도화였다. 랜섬웨어는 가상환경인 하이퍼바이저 환경으로까지 공격이 확대됐으며 원격 모니터링·관리 도구 취약점 악용 등 유포 방식도 더욱 정교해졌다.

알리스테어 닐 버라이어즌 글로벌 정보보안 총괄은 “최근 랜섬웨어 침해 사고로 7천500만 달러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랜섬웨어 회복에 사용된 비용이 10억 달러로, 랜섬웨어 금액이 증가하고 방식이 고도화하는 게 트렌드”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케미칼, 여수 2공장 일부 라인가동 중단

“운영 효율화 조치”

롯데케미칼이 여수 2공장의 일부 라인을 가동 중단한다. 공장 수율화를 위한 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여수 2공장내 에틸렌글리콜(EG), 산화에틸렌유도체(EOA) 등의 생산 라인을 가동 중단했다. 크래커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원료 부족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수익성을 고려해 여수PET 라인을 가동중단한 바 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기초화학 생산부문의 원가 절감과 수익성 확보를 목표로 공장 단위의 운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현재 크래커 가동률 조정에 따라 다운스트림 일부 라인의 가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적의 가동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를 배우다. 시대와 통하다.

• 영도학부

• KIO학부

• 연세학부

• 한겨레학부

• 스페인어학부

•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 경영학부

•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 다문화·심리상담학부

• K뷰티학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5-1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1차 2024. 12. 1(일)~2025. 1. 16(목) 2차 2025. 2. 3(월)~2025. 2. 17(월)



문의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증권사, 연말 조직개편·임원인사 실시... 경쟁력 강화 도모

NH투자증권, 리테일혁신추진부 신설
운영리스크팀 통해 관리 강화 대응
LS증권, 조직개편으로 IB 지위 강화
삼성증권, 예년보다 승진규모 확대

증권사들이 연말을 앞두고 사업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종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력을 갖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리테일 부문에서는 초부유층과 디지털 부유층이라는 핵심 고객군 공략을 위해 리테일(Retail)혁신추진부를 신설했다. 또 기존 디지털(Digital)전략 본부를그로스(Growth)그룹으로개편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기반 성장을 추진하고, 리테일지원본부는리테일자문(Retail Advisory)본부로 변경해 자문 서비스 역량을 강화했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증권사가 연말 조직개편, 임원인사를 실시하는 이미지.

기업금융(IB) 부문에서는 글로벌 신디케이션부와 구조화금융부를 신설, 글로벌 세일즈와 구조화 사업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산위탁운용관리(OCIO)솔루션본부 산하의 멀티상품솔루션부를 IB사업부로 이동시키고 부서명을 글로벌 상품(Global Product)솔루션부로 변경했다.

기관영업 부문에서는 투자솔루션제

공과 OCIO 수행으로 전문화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에퀴티 세일즈(Equity Sales)본부 명칭을 기관 커버리지(Coverage)본부로 변경하고 기관 금융상품영업까지 포괄하는 홀세일(Wholesale) 비즈니스 전담 체계를 구축했다. OCIO솔루션본부 산하에 마케팅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OCIO마케팅부를 신설해 전문성을 제고했다.

전사 지원조직은 사업조직의 효율적

지원과 규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너지 관리조직, 운영리스크 관리조직,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체계를 변경했다. 특히 리스크관리본부에 운영리스크팀을 신설해 감독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에 대응하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부문을 신설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급 인사도 단행했다. 능력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젊은 임원들을 중용했다. 이재경 PWM사업부대표와 이수철 운용사업부대표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IB 부문에서는 이성 IB1사업부 대표, 신재욱 IB2사업부 대표를 나란히 전무로 승진시켰다.

LS증권도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IB 조직의 지위를 강화하고 기업 솔루션 제공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기업 금융조직을 IB1사업부로 격상시키고, 산하에 기업금융본부와 종합금융본부를 편제했다. 기존 IB사업부는 IB2사업부로 재편해 부동산금융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리테일사업부에서는 윤주의 디지털 영업본부장을 새롭게 선임하고 디지털 사업 역량을 확대하고 급변하는 리테일 영업환경에 대응키로 했다. 세일즈앤트레이딩(Sales&Trading)사업부에서는 산하 멀티 스트래티지(Multi Strategy)본부와 주식운용본부를 통합·재정비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기업금융본부를 이끌던 문형동 전무가 IB1사업부대표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본부장인 정재욱 상무가 IB2사업부 대표를 맡는다. 오영진 전무와 윤원재 상무는 각각 리테일사업부와 홀세일사업부 대표로 선임됐다.

삼성증권은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부사장 1명, 상무 5명 등 총 6명을 승진시키는 등 예년보다 승진 규모를 확대해 시장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삼성자산운용 역시 정기 임원인사에서 김용민 부사장과 박지호·유진환 상무 등 총 3명을 승진시켰다. 양사는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 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비트코인·테슬라, 조정 이후 상승세 기대감

해외주식 Click

서학개미, MSTU 1억만 달러 매수
ETHU에도 4544만 달러 몰려

최근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조정 국면을 보였던 비트코인 테마주와 테슬라에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 이후 상승세 재개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주(11월 26일~12월 2일)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 따르는 티렉스 2배 롱 MSTR 데일리 타겟 ETF(MSTU)을 1억914만 달러 가량 사들였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기업이지만, 대규모 비트코인 투자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대체 투자처'로 불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주가 역시 지난달

초부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주가는 무려 94%가량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11월 21일 하루 만에 16.2% 급락하는 등 이달 2일까지 7거래일 동안 20%가량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들의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주가가 조정을 마치고 곧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며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전략이 어떠한 리스크 없이 수행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전략의 취약점이 상기되며 주가의 하방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더리움 선물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2배 이더 ETF(ETHU)에도 약 4544만 달러가 몰리

며 암호화폐 관련 자산에 대한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서학개미는 박스권에서 등락했던 테슬라에도 1억592만달러의 매수세를 보였다. 테슬라 주가는 11월 8일 300달러를 돌파한 후 320~350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지만, 최근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테슬라 주가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월가 투자은행 스티펠의 스티븐 젠가로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높은 411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는 '행 스티펠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제조 기업이 아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세계 10대 자동차 제조업체의 시가총액 합보다 더 큰 것으로도 알 수 있다"며 "AI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 사이버 캡(로보택시)의 가치 창출 잠재력 등이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윤창현 "사장 직속 'STO 태스크포스' 신설"

(코스콤 사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본시장 3대 변화흐름 대응 전략 제시
ATS 출범 등 88-66 미션 완수도 총력

"토근증권(STO) 관련 사업은 직접 챙길 예정이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사장실 직속으로 만들었고, 본부의 역할이나 조직 구성을 직접 책임 있게 가동시키겠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사장은 이날 코스콤의 3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3대 변화 흐름인 ▲New Assets(새로운 자산) ▲New Market(새로운 시장) ▲New Technology(새로운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New Assets'에 대해서는 'STO 공동플랫폼'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사장은 STO 사업을 직접 챙기며 시장 활성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달 29일 사장 직속 부서인 'STO사업추진TF부'를 신설했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3일 코스콤 본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NewMarket'에서는대체거래시스템(ATS) 출범과 파생상품 야간시장 개장에 대비한 '88-66 미션' 완수에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New Technology' 분야에서는 AI 기술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AI 컨택센터(AICC) 서비스를 확대해 금융사들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국내증시 부진... 기관, 인버스 투자로 수익

연말 '산타렐리' 기대감 뚫

연말을 맞이했음에도 한국 증시에 '산타렐리'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증시 상승을 기대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률 하락을 겪는 반면, 인버스에 투자한 기관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45.62포인트(1.86%) 오른 2500.10에, 코스닥은 14.96p(2.21%) 오른

690.80으로 장을 마쳤다. 통상적으로 12월은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영향으로 빠르게 부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국내 양대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인버스 ETF의 수익률을 넘

어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 주 동안 개인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이 ETF는 기초지수인 코스닥150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2배씩 추종하는 ETF로 한주간 수익률 -8.92%를 기록했다. 반면 삼성자산운용의 'KODEX200선물인버스 2X ETF'와 'KODEX 코스닥 150선물인버스' 등을 순매수한 기관 투자자들은 각각 6.41%, 4.68%의 수익을 올렸다.

증권가에서는 산타렐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현대차증권, 신용도 하향압력 완화 평가

지난달 2000억 규모 유상증자 대한 재무건전성 지표 회복 시 부담 완화

현대차증권은 지난 11월 결정한 유상증자에 대해 국내 3대 신용평가회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로부터 신용도 하향압력 완화 평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1월 현대차증권 이사회에서 결정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위험투자 확대로 저하됐던 재무건전성 지표가 상당부분 회복되며 신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이 수정NCR과 순자본비율이 각각 267%, 636.4%로, 2024년 9월말 대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6배 수준까지 도달했던 조정레버리지비율도 5배 미만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압박에 게임사, 사행성 우려... 일제 거부

넥슨 發 게임규제 강화 예고

게임사 매출 76% 확률형게임 기반 웹젠 등 5곳 ‘확률 오폭기’ 조사받아 위기극복 위해 ‘구독형’ 사업 제시

대법원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송에서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게임업계가 다시 한번 확률형아이템 규제의 늪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확률형아이템 내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산업법을 개정하고 나섰지만 사행성 논란 등의 이유로 게임사들은 일제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씨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첫 사례로 현재 공정위 조사 받고 있는 타게임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PC·모바일 매출 약 20조원 중 76%에 해당하는 15조원은 확률형 아이템 기반 비즈니스 모델



넥슨 사옥 전경. /넥슨

(BM)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이 주 수익사업인 게임사들 입장에서 이번 판결이 달갑지만은 않다. 뿐만 아니라 확률형아이템을 놓고 사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시행된 ‘아이템 확률 정보 의무 공개법’을 포함한 게임산업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규제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게임사들은 확률형 게임을 놓고 내부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행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거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넥슨은 지난 2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 과금액 현황’에 대한 질의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넷마블·엔씨소프트·카카오

게임즈 등 나머지 10대 게임사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과거 게임사들이 해당 규제를 피하고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 각사가 공정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불일치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기도 했다. 확률 오폭기 관련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게임사로는 ▲크래프톤 ▲위메이드 ▲컴투스 ▲그라비티 ▲웹젠 등이 꼽힌다.

국내 게임사들은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방향을 틀며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게임시장의 발전과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을 통한 BM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이 게임산업 발전 위해 다양한 BM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다만 대형 게임사들은 BM 전환을 위해 버틸 여력이 있었지만 중소형 게임사들은 그마저도 어려울 수 있어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지나친 반감을 지양하고 BM 전환을 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K벤처 30년. 성장을 잇다, 미래를 빛다’

벤처기업협회, 30주년 기념 슬로건 선정

벤처기업협회가 벤처 3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K벤처 30년. 성장을 잇다, 미래를 빛다’를 선정했다.

3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모전을 통해 벤처 30주년 기념 슬로건을 접수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총 1117건으로 벤처기업 및 유관기관 종사자(407건), 일반 시민(405건), 벤처기업에 관심 있는 학생(305건) 등이 참여했다.

제시가 많았던 단어로는 혁신, 도약, 성장, 글로벌(세계), 미래 등이다.

공모전 심사는 1차로 심사위원단이 후보작 3건을 선정했으며, 이후 온라인 공개투표를 통해 대상과 우수상을 확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K벤처 30년. 성장을 잇다, 미래를 빛다.’는 지난 30년 성과의 기쁨을 넘어 성장을 이어가고,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해당 슬로건은 내년 전국 4만여 벤처기업과 벤처생태계 구성원이 사용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기보, 제1호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지정

벤처 성장촉진 지원사업 수행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1호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3일 기보에 따르면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중 기부가 지정한다.

기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시행됨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 중기부의 요건 심사절차를 거쳐 지난달 27일 최종 전문기관으로 결정됐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통해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보증 지원 473조원, 기술평가 86만건 등을 수행했다. 또 무형자산 평가시스템을 통해 100만건 이상의 기업 상담·현장실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스케



부산광역시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본사.

일업을 위해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약 2만개의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우대보증 지원을 통해 약 1만개 벤처기업에 7조7000억원의 기술보증을 공급했다.

한편, 기보는 소셜벤처기업 판별과 육성을 위해 소셜벤처기업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소셜벤처기업에 전용 보증상품인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을 통해 다양한 우대사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8276억원의 우대보증을 통해 소셜벤처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승호 기자

메인비즈協, 중국 등 글로벌시장 개척 시동

정저우한·중 혁신기업 포럼 열고 ‘비즈니스 플랫폼’ 현판식 가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중국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중국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시와 교류·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데 이어 내년 4월에는 중국 하이난에서 혁신기업 교류포럼을 여는 등 중국 전역으로 보폭을 넓혀가기로 하면서다.

올해 2월 7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명진 회장은 지난 10월 말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메인비즈 글로벌 위원회’와 ‘메인비즈 글로벌 어드바이저’를 구성해 회원사들의 글로벌 진출을 더욱 촉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등 아시아시장으로 경영혁신 기업들의 발걸음을 확대한다는 포석이다.

메인비즈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정저우에서 ‘한·중 혁신기업 교류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협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락사무소격인 ‘한·중 비즈니스 플랫폼’을 꾸리고 현판식도 가졌다. 이에 따라 정저우항공항에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저우항공항 사무소’를, 한국 메인비즈협회엔 ‘중국 허난성 정



메인비즈협회는 중국 정저우에서 ‘한·중 혁신기업 교류포럼’을 열고 연락사무소인 비즈니스 플랫폼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왼쪽 2번째)이 정저우항공항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저우항공항 한국대표처’를 각각 열기로 했다. ‘정저우항공항’은 정저우공항을 관리하는 곳이다.

메인비즈협회 회원사들은 정저우 중원 의학과대학성 건물 13층에 위치한 협회 사무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김명진 회장은 포럼 개막식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이 상호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 양국의 산업과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포럼이 한·중 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 35개사와 중국기업 30개사, 정저우항공항경제특구 관계자 등 약 130여명이 참여했다.

협회는 이번 교류포럼을 통해 현지 기업과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의 분야에서 1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한·중 국제협력산업단지’ 현판식도 가졌다.

협회는 이런 성과를 발판삼아 내년 4월에는 중국 하이난 보아오러칭 국제의료관광특구에서 한·중 혁신기업 교류포럼도 추가로 개최하는 등 계속해서 중국 전역으로 교류포럼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 수요조사를 해보니 중국은 여전히 소비시장으로서 매력적인 곳으로, 진출 희망도가 가장 많았던 국가”라며 “현지로부터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중국에 제품·서비스를 수출할 기업, OEM 수요 기업 등 니즈에 따라 중국과 다양한 협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금융권 모의해킹 훈련... 취약점 즉시 보완

금감원-금융보안원

화이트해커 통해 모의훈련 실시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국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화이트해커(착한 해커)’ 등을 통한 사이버 모의훈련을 올해 2차례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중요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미비점이 나타나 즉시 보완조치에 나섰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보원은 금융회사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지난 2월과 10월 화이트해커를 통해 은행업권과 제2금융권 모의해킹 훈련을 각각 실시했다.

훈련은 일시·대상·방법을 비공개로 금융회사의 탐지·방어체계를 불시에 점검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상반기에는 전체 은행(19개) 중 6개 회사에 대한 훈련을 진행했고, 하반기엔 제2금융권 및 생성형 인공지능(AI) LLM(Large Language Model·생성형AI)의 거대언어 모델에 비정상 답변

을 유도하도록 조장하는 행위)을 대상 83개 중 총 12개 금융회사 등을 불시에 점검했다.

특히 하반기엔 망분리 로드맵의 일환으로 조만간 금융권이 도입하게 될 생성형AI와 관련해 어떠한 환경(비정상적 질문)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특성인 ‘강건성’을 점검해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도출 후 보완하도록 했다.

2차례 훈련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외부 사이버위협에 충분한 대응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중요 취약점이 발견됐다.

이번 훈련을 통해 금융회사가 기존의 훈련 방식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경영진을 포함한 회사내 전반적인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2030년 K-그리드 150억弗 수출 시대 연다... 민관 원팀 총력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출범
팀코리아 브랜드로 통합패키지 수출
글로벌 에너지 시장 5% 점유율 도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전력망 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K-그리드를 원전에 이은 제2의 에너지 수출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제32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세계적 인문·에너지로의 전환 추세로 인해 원전·재생·수소 등 발전용량 확대와 더불어 전력망에 대한 투자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리드 산업은 전선류,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기자재를 비롯해, ESS, 각종 솔루션 등을 포괄한다.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향후 노후망 교체와 신규망 구축 수요가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블룸버그(BNEF)에 따르면 세계 그리드 투자액은 2020년 2350억달러에서 2030년 3720억달러, 2050년 6360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을 방문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과 냉각 공조기 현황 및 전망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그리드 구축은 약 10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구축 이후 유지보수 등이 연계돼 원전 수출과 같이 국내기업들의 동반진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그리드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발전소와 그리드를 아우르는 통합 패키지 수출 모델을 확립하고, 주요국 첨단산업 대규모 전력수요를 중점 공략할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 등 주요 발전지역과 대규모 전력수요처 간의 지리적 불일치로 수요가 급증하는 장거리 송전망(HVDC) 구축 시장 선점도 지원해 나

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그리드 수출을 위한 민관합동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얼라이언스에는 26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전력공기업들과 설계·구매·시공 전문기업(EPC), 그리드 기업 등이 부문별 강점을 결합, ‘팀코리아’ 브랜드로 발전-송배전-보조서비스 등 전략산업 전 밸류체인 수출 추진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얼라이언스 내부에 2개 분과(사업협력·수출지원)를 구성, 해외시장 정보 공유, 진출전

략 논의, 기업으로 해소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전력공기업과 대기업은 기자재 등 수요자이자 디벨로퍼로서 얼라이언스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EPC는 국산 기자재 활용, 전기연·무보·코트라 등은 시험인증과 금융·마케팅 등 수출 지원에 힘을 예정이다. 주요 법무법인도 동참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법률이슈 대응을 지원한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들은 발전소 구축뿐만 아니라 제조·시공·운영에도 세계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발전소-그리드 통합 패키지 수출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에너지 수출모델이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그리드 수출 150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는 ‘AI를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 정책방향’,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그린버튼 확산 ▲AI 전력운영시스템 실증 ▲통합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3대 시범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등 안정적 전력 공급과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T 찾아가는 수출 컨설팅 K-푸드 글로벌 도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일 충남 홍성군청에서 ‘찾아가는 K-푸드 수출 현장 컨설팅과 실거래 창출을 위한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돕는다. 수출업체들이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aT는 특히 올해 지역의 우수 K-푸드 기업들이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경북, 전북, 경남 등에서 ‘찾아가는 수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진행된 이번 ‘찾아가는 수출 컨설팅’에는 홍성·예산의 우수 K-푸드 기업 30개사가 참여했다. aT는 참여기업들이 현장 컨설팅뿐 아니라 국내 대표 단체급식 기업인 삼성웰스토리와의 구매상담회도 주선하며 실거래 창출에 공을 들였다.

아울러, 신제품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농촌진흥청과의 현장 상담 등 다채로운 상담 기회를 제공해 참여기업들의 호평을 받았다.

aT는 대한민국의 식품 영토확장을 위해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의 우수 K-푸드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출 컨설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량수요처 구매상담회 동반 개최 등 사업 구성을 다양화해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서 기자 kys@

정인교 “세계시장 수출 선봉장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세계시장 점검회의’ 개최
대구·창원·대전·청주, 수출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가 전 세계 상무관·무역관들에게 올해 마지막 한달 수출 확대에 총력 경주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2024년 세계시장 점검회의’를 개최, 내년 세계 수출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정 본부장은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상무관과 코트라 129개 무역관을 총괄하는 10개 해외지역본부에 “올해 남은 기간도 긴장을 유지하며 수출지원에 총력 경주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대외환경과 자동차 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안호텔에서 중국 무역·투자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품업체 파업, 기상악화발 물류 차질 등 예상치 못한 부정적 요인에도 우리 수출은 14개월 연속 플러스,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전 세계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장은 세계 시장 수출 선봉장이라는 자세로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코트라 해외지역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수출 성약으로 이어지도록 집중 관리하는 한편, 연말 소비 수요에 맞춰 온라인 마켓 입점지원을 강화하는 등 연말까지 계획된 수출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주요 수출국 상무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주요국 동향 ▲내수 부양 정책 ▲자국 내 산업육성 정책 동향을 공유했고, 코트라는 전 세계 무역관이 수집한 내년 시

장 전망과 진출전략을 공유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위기요인에 대비하겠다”며 “우리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는 상호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계된 첨단산업 경제 동맹으로 발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협력과 우리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이날 회의를 토대로 4일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 우리 수출기업 500여개사에 내년 세계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이어 대구, 창원, 대전, 청주 4개 지방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탐방 환경 구축

환경부, 생태문화·접근성 강화

환경부는 모든 국민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탐방 기반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층 더 향상된 탐방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이 뛰어나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과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다. 최근 여가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국립공원의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부는 탐방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우선, 2022년부터 북한산을 포함한 14개 국립공원에 무장애 탐방로 12곳과 무장애 야영시설 181동을 새롭게 조성했다.

국민이 보다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작된 노후시설 전면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김대환 기자

울산 산단, 화학사고 공동방재체계 가동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개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4일 민관 합동으로 울산 남구 울산콤플렉스에서 울산 산단 내에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누출된 화학물질을 폐기 및 회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 화학사고 민·관공동대응협의회 대표사(SK에너지), 울산 환경기술인협회, 울

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협약 기관은 울산 산업단지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취약시간을 포함해 인력, 장비, 방재차량, 방재물품 등을 신속히 사고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필요 시에는 울산 지역 외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평상시에는 협약 기관들이 화학사고 및 테러에 대비해 합동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고용노동부 폴리텍 신중년 과정 2026년 1.5만명 목표

고용노동부는 폴리텍대학이 운영하는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올해 2500명에서 2026년까지 1만5000명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은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전기, 용접, 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며, 평균 취업률은 60%에 달한다. 올해부터 950만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들고, 내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직업 전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장관은 이날 서울정수 캠퍼스를 찾아 자동화(PLC&CAD), 미래형자동차 분야 등 신중년 특화과정 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생 및 대학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학내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문수 장관은 “핵심 노동 인력으로 부상한 고령층이 희망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제3회 소담회 정기전

The 3rd SODAM Art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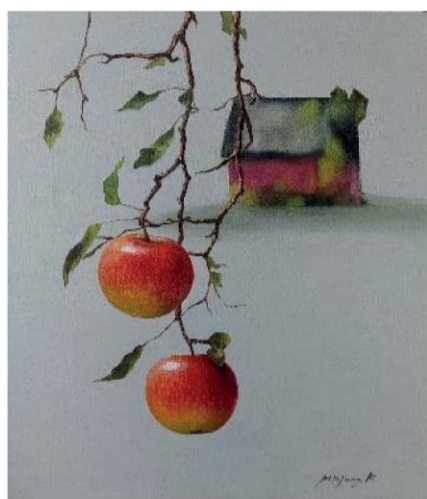
Gallery **오름**

Dec 1 ~ 8
2024

관람시간 11:00 ~ 19:00
(전시 마지막 날 12:00 마감)
매주 일, 월요일 정기휴관



Formentation II
강정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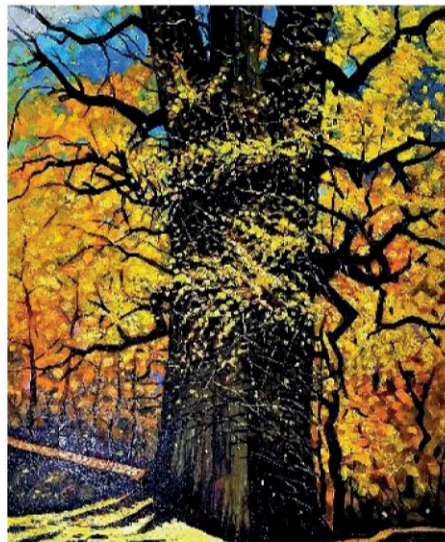
가을의 선물
김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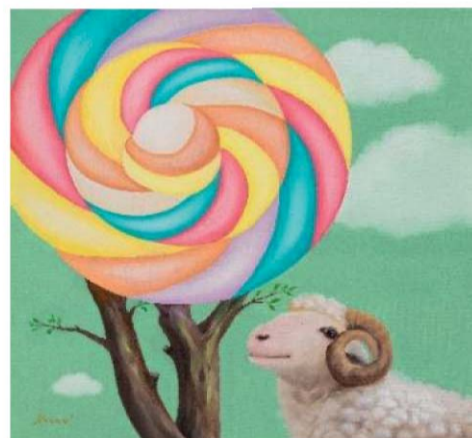
Perfume 2024
김현정



천당폭포
이상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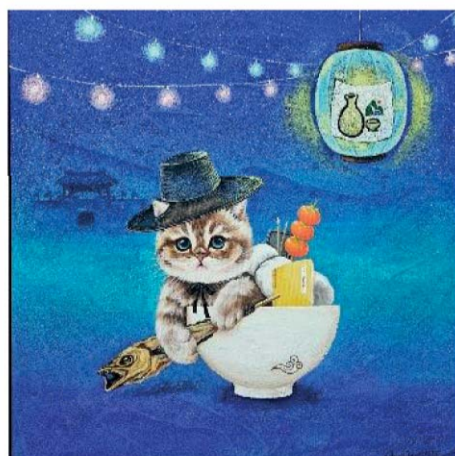
천년의 화석
김유식



나 꿈이 생겼어_롤리팝나무
김경아



sweet cloud vine
Berry-J



행복을꿈꾸는 냥이(선비냥이)
배인영



작약
박희정

광주시 '베스트10 정책', 시민이 직접 뽑는다

내일 '스타정책 경진대회' 개최
광주 복합 소핑몰 등 후보 올라
시민 300명, 전문가 30명 참석

올해 광주시의 '베스트10 정책'은 뭘까? 광주시민들이 광주를 빛낸 우수정책들을 직접 뽑는다.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두 번째로 여는 '스타정책 경진대회'는 기존 우수정책 평가의 단점을 보완해 일회성 평가가 아닌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동안 연중 지속해 진행됐으며, 평가방법도 혁신적으로 전환해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

에서 시민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행사는 시민 중심의 연중 지속 평가인 '정책평가박람회'의 하나로, 올해의 베스트10 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보 정책들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렛대가 될 '광주 복합 소핑몰 이제는 됩니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 안심의료 체계를 구축한 '연중무휴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AI 특화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최초 AI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국가 AI데이터센터 서비스로 기업이 찾아오는 AI 대표도시' 등 광주시의 손에 잡히는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들이다.

이날 경진대회는 시민평가단 300명과 전문가평가단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5개 후보 정책 발표 직후 전자투표기를 활용해 현장평가를 하게 된다. 최종 점수 집계는 사전평가 30%, 시민평가단 40%, 전문가평가단 30% 비율로 산정해 '올해의 베스트10 정책'을 최종 선정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월 민선 8기 224개 주요사업과 176개 공약사업 중 내부 검토를 통해 ▲산업·경제 ▲문화·관광·체육 ▲복지·돌봄·포용 ▲안전·교통 ▲환경·청년·교육 등 5대 분야 52개 후보정책을 선정했다.

4월에는 52개 후보정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광장인 '광주온',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 가장 기대되는 정책 30개를 선정했다.

5월25일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청에서 30개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평가박람회'를 개최했다. 30개 사업별 추진현황을 담당자가 직접 시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각 사업에 대한 현장평가를 진행, 시민 2078명이 정책평가에 참여했다.

9~11월에는 지역사회리더 평가를 진행해 5개 자치구 통장·주민자치위원과 경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월부터 진행해 온 정책별 득표를 합산 집계해 30개 후보 사업 중 15개 사업을 '올해의 베스트10' 후보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양군은 정부에서 수여하는 '재난안전 특별유공' 포상에 3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영양군

재난안전 특별유공 포상 3명 수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느라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수여하는 「재난안전 특별유공」 포상에 3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2일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안전가족 격려행사」에서 입암면 유영준 금학리 이장은 대통령 표창, 입암면 송영현 대천리 이장, 김형중 입암면 자율방재단장은 국무총리표창, 입암면 금학리 이호국씨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울경, 울산서 경제동맹 성과 홍보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 토론회
동북아 8대 초광역경제권 육성과
청년인구 유출·인재양성 등 논의

울산시는 3일 오전 10시 울산문수컨벤션에서 '2024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부울경 경제동맹의 역할과 성과를 홍보하고, 부울경 현안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성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안승대 행정부시장, 하혜수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혁신전문위원회 2기 위원장, 부울경 기획조정실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동북아 8대 초광역경제권 육성을 위한 부울경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 주제 발표,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되었는데, 기조강연은 하혜수 위원장이 부울경 초광역 발전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모종린 연세대 교수가 '청년인구 유출과 인



울산시가 작년 7월 12일에 열린 '제1회 부울경 정책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한 모습.

재 양성', 이원규 부산연구원 박사가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1시간 생활권'을 발표했고, 전문가 토론은 이수식 울산지방시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동북아 8대 초광역경제권 육성을 위한 부울경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부울경 경제동맹의 출범 이후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국비 대응,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등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많이 이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생협력력을 통해 지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강진군,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속도

청년 글로벌 플랫폼 건립사업 통과

폐교된 성화대를 리모델링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 거점 기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강진군 '청년문화 강진, 청년 글로벌 플랫폼 건립사업'이 28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탄력을 받게 됐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청년문화 강진, 청년 글로벌 플랫폼 건립사업'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대응을 위해 2012년 폐교 이후 지역의 애물단지였던 옛 성화대의 부지를 매입해 공간 혁신 및 4차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 거점 공간으로 재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강진군은 작년 7월 전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330억 원(도비 200억, 군비 130억)을 확보하고, 작년 9월 강진군 자체 예산으로 7만 평의 부지와 8개동의 건물로 구성된 옛 성화대의 재산을 모두 매입했다.

군은 옛 성화대의 유휴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해 강진만의 차별화된 문화와 4차산업 기술을 융합해 교육 및 문화,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스타트업 기업 및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 지원, 실감미디어 콘텐츠 체험관 구축, 드론산업 혁신밸리 조성 등을 통해 생활형 정주 인구를 늘릴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이르면 시간내에 군관리계획시설(학교)해지 입안을 마무리하고, 실시 설계 및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경주시,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 8억 목표

'희망2025 나눔캠페인' 제막식

경주시가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일 오전 경주문화관 1918 광장에서 '희망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경주시가 후원하며, 나눔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김재훈 경주시 사랑의 열매 봉사단장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나눔봉사단원, 기부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경주시는 올해 모금 목표액을 8억 원으로 설정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인 800만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

캠페인 첫날부터 19건의 성금, 총 1억 7000만원이 모여 훈훈한 시작을 알렸다. 주요 기부자로는 ▲나원산업(주) 8000만원 ▲(주)현대강업 2000만원 ▲(사)경북여성기업인협회 경주지회 1000만원 ▲영양숯불갈비 1000만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희망2025 나눔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경주를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해 희망 2024 나눔캠페인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나눔의 온도를 뜨겁게 달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마음이 모이면 큰 온기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나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경북교육청이 4일 경산을 시작으로 6일 포항과 13일 구미에서 '청소년 행복 콘서트'를 차례로 연다.

경북교육청, 청소년에 희망·격려 전달

경산, 포항, 구미서 '행복 콘서트'

경북교육청이 4일 경산(시민회관)을 시작으로 6일 포항(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과 13일 구미(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청소년 행복 콘서트'를 차례로 연다.

이 콘서트는 수험생과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경북교육청과 TBC가 기획한 것으로 매년 지역별로 열린다.

올해 경산 콘서트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힘차게 나아가

는 '꿈'을 주제로, 포항 콘서트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멋지게 도전을 이어가려는 청소년들의 '자유'를 주제, 구미 콘서트는 새롭게 펼쳐질 학생들의 길을 응원하며 새로운 첫발을 희망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시작'을 주제로 진행된다.

콘서트에는 아이들과 유명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해 꿈·자유·시작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달한다.

출연진들과 청소년들이 직접 소통하며 응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경북=김삼복 기자 ksb8100@

부산시

시내버스 디자인 9년 만에 변경

지난 2016년에 도입된 부산 시내버스 디자인이 9년 만에 바뀐다.

부산시는 4일 오전 11시 부산역 광장에서 시내버스 디자인 변경 공개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빅 버스(BIG BUS)'로 명명된 새 시내버스 디자인은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2종류로 부산의 도시 이미지와 시인성, 심미성, 상징성 등 요소들을 담았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통영시

숲가꾸기 추진 '우수기관' 선정

통영시는 경상남도에서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산림자원분야 평가 중 숲가꾸기 추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상남도 전 시·군의 산림자원 분야 전반에 대한 서류 및 사업장 현장 평가로 4개 항목 15개 지표에 대한 평가 이뤄졌으며 평가 결과 통영시는 6년 연속 숲가꾸기 사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지역특색에 맞는 숲가꾸기 사업 추진계획 수립, 안전사고 미발생 등 다양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통영(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20.1억 지급

창원특례시는 2024년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2146명에게 총 20억 1200만원 지급해 대학 신입생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창원 새내기 지원금'은 창원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창원시 관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2024년 3월 1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34세 이하 재학생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이상기후에 美 관세까지... 카카오·커피 원료제품 가격 인상

연말 식품물가 '초비상'

해태제과 홈런볼 1700원→1900원
10개 제품 가격 평균 8.6% 인상
롯데웰푸드 제품 17종 평균 12% ↑
동서식품 커피믹스 등 8.9% 올려

연말 식품 물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기후위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관세 정책이 식품업계를 뒤흔친 것이다.

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주요 식품업체들은 최근 국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카카오, 커피 등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 가격을 인상했다.

해태제과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초콜릿 원료 비중이 높은 홈런볼과 포키, 오예스, 자유시간 등 10개 제품 가격을 평균 8.6% 인상했다. 2022년 5월 이후 2년6개월만이다.

홈런볼과 포키 소비자 가격은 1700원에서 1900원으로 각각 200원(11.8%) 올랐으며, 자유시간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0원(20%)인상했다. 오예스 가격도 6000원에서 6600원으로 10% 올랐다.

오리온도 13개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올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초코



해태제과 등 제과업체는 1일부터 초콜릿 제품 가격을 평균 8.6% 인상했다.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원두를 볶고 있다. /뉴스시스

송이와 비쇼비 가격은 20% 올랐다. 초콜릿 제품 투유의 경우 30% 이상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당분간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롯데웰푸드는 지난 6월 빼빼로와 가나초콜릿 등 17종 초콜릿 과자 가격을 평균 12% 올렸다. 제과업체들은 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 가격이 치솟은데다 물류, 인건비가 오르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도 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의 국제 시세가 최근 2년간 네 배 이상 급등했다. 향후 카카오와 견과류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격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와 커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

소가 꼽힌다. 세계 최대 카카오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와 가나는 폭우와 전염병으로 생산량이 각각 20%, 35% 줄었으며, 커피 생산국인 베트남과 브라질은 가뭄과 폭우로 경작 및 수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원두 가격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비해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선 것도 원두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보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동서식품은 지난달 15일 인스턴트커피와 믹스·음료 등의 제품 출고가를 평균 8.9% 올렸다. 맥심 모카골드(리필 500g)는 1만7450원에서 1만9110원으

로, 같은 브랜드 커피믹스(2.16kg)는 2만3700원에서 2만5950원으로 인상했다. 동서식품은 커피 음료인 맥심 티오피(275ml)와 맥스웰하우스(500ml) 가격도 각각 110원씩 높였다.

커피 프랜차이즈도 일찍이 가격을 인상했다. 지난 8월 스타벅스코리아는 커피 음료 그란데(473ml) 사이즈와 벤티(591ml) 사이즈 가격을 각각 300원, 600원씩 올렸다.

소비자들은 초콜릿과 커피 가격 상승이 또 다른 연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국제 원두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다른 식품 제조사들과 커피·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도 시차를 두고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제과 제품에서 초코 함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스위스 기업 네슬레는 영국에서 초콜릿 함량을 기존 제품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제품을 출시했고, 미국 기업 허쉬는 '킷캣'의 초코 코팅을 대폭 줄여 판매를 시작했다.

제과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와 커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가격 안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 등 식품 원재료 값 인상에 따른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식품 소재 업계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밝혔다. 내년 밀 구매 자금 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카카오, 유지류 등 다른 식품 소재 분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품목별 지원 예산은 관련 부처 협의의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3% 안팎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제반 비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지원 소식은 반갑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원가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아울렛, 연말결산 '클리어런스 워크'

아울렛 판매가에 최대 30% 추가할인
파주점 등 6곳서 '아이디' 최대 70%

롯데아울렛이 한 해를 총망라하는 '클리어런스 워크' 행사를 진행한다. 3일 밝혔다. 행사는 이달 6일부터 8까지다.

롯데아울렛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상품군에 걸쳐 아울렛 판매가에 최대 3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타임', '마인', '시스템', '질스투어트', '이자벨마랑' 등 총 300여 브랜드가 행사에 참여한다. 이외에도 '지방시', '발렌티노', '토리버치' 등 해외패션 브랜드가 참여해 이월상품을 최대 30~40% 추가 할인가로 제공한다.

아웃도어 브랜드 할인 행사도 준비됐다. '아이디'에서는 파주점을 포함한 6개 점에서 최대 70% 할인한 아우터와 특가 상품을 판매한다. '블랙야크'는 동부산점 등 4개 지점에서 2024년 가을 겨울 상품을 최대 30% 할인한다. 'K2'는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 전경. /롯데아울렛

의왕점 등 4개 지점에서 이월상품 추가 10% 할인 행사와 더불어 최대 70% 할인된 품목을 선보인다.

아웃도어 브랜드 상품에 이어 특가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네과'는 파주점을 포함한 3개 점포에서 '에션셜 롱다운 자켓' 최대 70% 할인한 특가로 제공한다. 광고점과 동부산점 '노스페이스'에

서는 '리버톤 온볼 자켓 그린' 등 특가 상품을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롯데아울렛은 상품권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당일 상품권 행사 참여 단일브랜드에서 6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7% 상당의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쿠팡, 반려동물 용품 최대 70% 펫페이

오는 14일까지... 100여 브랜드 참여

쿠팡이 연말을 맞아 대규모 반려동물 용품 할인 행사 '펫페이'를 이달 14일까지 진행한다. 3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2024 라스트 메가 세일 펫페이'에서 사료, 영양제, 간식, 모래와 배변패드 등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행사에는 뉴질랜드 프리미엄 펫푸드 '지위픽',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벨버드' 등 총 100여 브랜드가 참여한다.

특히 '더독 닥터소프트 시니어 사료', '사조 러브잇 고양이 캔', '포우장 벤토나이트 모래' 등을 이달 7일까지 할인가에 제공한다. 8일부터 14일까지는

'ANF 식스프리 캣 어덜트 사료', '하림 펫푸드 밥이보약 관절 사료', '쉬즈곤 벤토나이트 모래' 등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특별 테마관도 마련됐다. '고객만족 리뷰 추천템'에서는 높은 평점을 받은 검증된 상품을, '최대 70% OFF'에서는 기간 한정 할인되는 다양한 상품이 준비됐다. '펫 투게더'에서는 인기 브랜드의 대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안재선 기자

CJ제일제당-위글위글, 한정판 굿즈 출시

리유저블 쇼퍼백·파티컵 등 4종

CJ제일제당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위글위글'과 컬래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연말을 맞아 기획된 이번 '비비고x위글위글 홀리데이 페스타'를 통해 다양한 이커머스 채널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비비고' 로고 및 브랜드 슬로건 'Live Delicious'와 '위글위글'의 대표 IP '위글베어'를 활용한 한정판 굿즈 4종(리유저블 쇼퍼백·파티컵, 오너먼트 키링, 펄프 수세미)을 증정한다.

우선 CJ제일제당 공식몰 'CJ더마켓'에서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대규모 특가 프로모션 '더세페(더마켓 세일 페스타)'에서는 올해 가장 사랑받은 CJ제일제당 대표 제품 구매 시 한정판 굿즈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비비고 만두세트



CJ제일제당이 위글위글과 콜라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CJ제일제당

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리유저블 쇼퍼백을 증정하며, 고메 소바바치킨 세트는 오너먼트 키링, 비비고 분식 세트는 리유저블 파티컵을 각각 제공한다.

또한 '더세페' 기간 전 제품을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추가로 최대 15% 중복 할인이 가능한 쿠폰도 제공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CJ제일제당 인기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홈플러스, 배민과 손잡고 '마트직송'

당일배송·예약배송 가능

홈플러스는 지난 2일, 예약배송이 가능한 대형마트 서비스인 '마트직송'을 배달의민족 장보기·쇼핑에 최초로 입점시키고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입점한 홈플러스의 '마트직송' 서비스는 전국 대형마트 매장의 상품을 고객의 집 앞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당일 배송은 물론, 고객이 원하는 날짜나 시간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는 맞춤형 배송이 특징이다.

배송 품목도 확대됐다.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식품뿐만 아니라 리빙·스포츠 용품, 완구, 가전, 의류 등 비식품도 배달의민족 장보기·쇼핑 서비스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의 제휴 확대는 고객 접점을 다각화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배달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홈플러스 온라인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를 늘리고,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제약업계, 표적 항암제 도전

유한양행·한미약품 '선봉장'

유한양행 'YH42946' 개발 속도
HER2 돌연변이 활성 억제

한미약품 신약 후보물질 선정
선택적 HER2 저해제 연구 집중

국내 제약 업계가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표적항암제 후보물질 'YH42946'의 개발에 속도를 낸다. 유한양행이 차세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YH42946은 HER2를 표적하는 타이로신 키나아제 억제제다. HER2 돌연변이 활성을 억제해 암 세포의 신호 전달을 저해하는 기전을 갖췄다.

유한양행은 올해 5월과 6월, 미국 식품의약품(FDA)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YH42946' 임상 1/2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이후 유한양행은 현재 'YH42946' 임상 1/2상 시험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해당 임상은 YH42946에 대한 최초의 사람 대상 연구로, HER2 이상 및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을 동반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에게 YH42946을 1일 1회 경구 투여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유한양행은 YH42946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항종양 활성 등을 평가한다.

YH42946은 유한양행이 앞서 상업화에 성공한 '텍라자'가 EGFR 돌연변이로 인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쓰



유한양행 본사

이는 것과 차별화해 설계됐다는 것이 유한양행 측 설명이다.

한미약품도 새로운 신약 후보물질로 HER2 저해제 치료제 개발에 재도전한다.

한미약품은 올해 4월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4)에서 '선택적 HER2 엑손20 삽입 변이 저해제'를 공개했다. 한미약품은 이 선택적 HER2 저해제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에 역량을 쏟고 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 신약 후보물질은 HER2 엑손20 삽입 변이 및 HER2 야생형 종양 동물 모델에서 항암 활성을 나타냈다. 또 뇌 전이 동물 모델에서는 해당 물질 투여군이 대조군 대비 뇌 전이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뇌 전이 억제 효능이 입증됐다.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은 이미 지난 2021년, 이전에 치료 받은 경험이 있거나 HER2 엑손20 삽입 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쓰이는 신약으로 '포지오티닙'을 개발한 바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항암 치료제 시장은 단순 약물에서 시작해 특정 단백질을 표적하는 방식 등으로 시시각각 새로운 패러다임을 겪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유전자 변이를 정복하는 것이 다양한 암종을 치료하는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전략이 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HER2의 경우에도, 이 단백질과 이 단백질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발현하는 정도에 따라 암을 분류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치료제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유한양행, AI모델 기반 신약개발 박차

온코마스터·휴레이포지티브 협력
'의미 있는 임상적 통찰' 확보 방침

유한양행은 온코마스터, 휴레이포지티브와 함께 인공지능(AI) 모델을 이용한 신약개발의 포괄적 공동연구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온코마스터와 휴레이포지티브는 AI 기반 치료반응성 예측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굴, 타겟 암종과 환자군 선별, 병용요법 개발 등을 통해 유한양행이 보유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들의 개발 성공률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밀의학 기반의 혁신적 신

약개발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글로벌 신약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한양행은 이번 협력을 통해 AI와 멀티오믹스 기반의 신약 개발 방법론을 본격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기존 기술로는 도달하기 어려웠던 '의미 있는 임상적 통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유한양행 조옥제 대표는 "제약산업은 데이터와 혁신의 융합이 핵심인 시대에 접어들었다. 유한양행의 AI 신약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 협력을 통해, 유한양행의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성공률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신제품

"오설록 '홀리데이' 한정판 만나보세요"

아모레퍼시픽 류은지 작가 협업

아모레퍼시픽은 고급 차 브랜드 '오설록'에서 류은지 동화 작가와 협업해 제작한 '2024 홀리데이 에디션'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이번 한정판은 녹차를 사랑하는 가상 모임인 '오설록 그린티 스카우트' 대원들과 '윈터 티마켓'을 주제로 꾸며졌다.

오설록 티뮤지엄과 티하우스, 티샵, 직영몰 등에서 6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류은지 작가가 그려낸 디자인이 적용된 패딩 담요를 6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오설록 인기 제품으로 구성된 '홀리데이 트라이얼 키트'를 비롯한 구매 금액대별 증정품도 다양하



오설록 '2024 홀리데이 에디션' /아모레퍼시픽

게 마련됐다.

또 이번 2024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출시된 '티 베리에이션 오'를 구매하는 고객은 '그린티 스카우트 강아지 대원' 그래픽이 새겨진 키링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전용 행사로는 케이크 2종 구매 시 '베이크리 데코팩'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LG생활건강 '더후' 레드닷 분상

LG생활건강은 궁중 피부과학 고급 화장품 브랜드 더후가 세계 최고 디자인 행사인 '202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3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더후 로얄 아트 기프트 패키지'는 이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한국 전통과 궁중 예술의 아름다움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후 로얄 아트 기프트 패키지'는 궁중 건축물, 공예 등에서 얻은 영감을 포장 상자, 보자기 가방, 북 주머니 파우치 등으로 구현한 것이다.

더후는 황색, 청색, 백색, 적색, 흑색 등 다채로운 오방색을 활용해 동양 문화의 가치, 균형미, 진정성 등을 추구하는 브랜드 철학을 표현했다.

이와 함께 더후는 환경 부담을 덜기 위해 접착을 최소화한 지기 구조로 박스를 개발했고, 보자기와 북주머니는 일상 소품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LG생활건강 디자인센터 관계자는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정관장, '에브리타임' 리뉴얼

출시 12주년... 누적 매출 1.5조 돌파
'가장 쉬운 자기 사랑법' 캠페인 전개

정관장이 '에브리타임' 출시 12주년을 맞이하여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하고 시대를 읽는 건강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또한 리뉴얼을 기념해 연말까지 '가장 쉬운 자기 사랑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에브리타임'은 2012년 업계 최초로 홍삼을 스틱형으로 선보이며 간편 홍삼의 시대를 연 정관장의 시그니처 브랜드다. 간편함과 섭취 편의성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니즈와 맞아 떨어지면서 지난 12년간 1조5598억원의 누적매출액을 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리뉴얼은 '정관장 홍삼정'과 공유했던 디자인 콘셉트에서 벗어나, 원(Circle)의 운동을 독자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삶의 활력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메인로고를 영문명 'EVERYTIME'으로 변경해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에브리타임의 글로벌 확장성까지 강조했다. 이번 리뉴얼은 '에브리타임 오리지널', '에브



정관장 '에브리타임 필름' /KGC인삼공사

리타임 소프트', '에브리타임 샷', '에브리타임 필름' 등 '에브리타임' 전 제품에 적용된다.

정관장은 초개인화 시대에 소비자의 건강니즈와 취향이 세분화되는 만큼, 고객 각각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간편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이번 리뉴얼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에브리타임'은 일상, 여행, 운동 등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춰 건강을 케어할 수 있도록 스틱, 필름, 엠플 등 다양한 제형을 선보이고, 맛과 소재, 기능성을 다변화한 제품을 꾸준히 확장해왔다.

아울러 '가장 쉬운 자기 사랑법' 캠페인을 마련, 이달 31일까지 에브리타임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스페셜 홀리데이 기프트' 등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삼립, '흑초강정·고추잡채' 호빵 선택

정지선·임태훈 셰프 레시피 재해석

삼립은 최근 인기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화제가 된 중식 셰프 정지선과 임태훈의 호빵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삼립은 '딤섬의 여왕'으로 불리는 정지선 셰프의 고유 레시피를 재해석해 '흑초강정호빵'을 선보였다. 흑초와 노두유(중국식 간장)를 더한 돼지고기로 깊은 풍미를 살렸다.

함께 선보인 '고추잡채호빵'은 임태훈 셰프가 운영하는 '도량'의 대표 메뉴인 피망 고기 볶음(고추잡채)을 활용

했다. 굴소스와 두반장으로 매콤한 감칠맛을 더한 돼지고기에 피망·죽순을 넣어 아삭한 식감을 살렸다.

두 제품 모두 전국 편의점, 마트, 슈퍼와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삼립은 신제품 출시에 맞춰 두 셰프들의 '중화 호빵 대전, 호빵요리사'영상을 공개하고 '호빵요리사 투표 이벤트'를 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호하는 제품에 투표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두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티엔미미·도량)의 식사권(2팀, 총 8명)과 삼립호빵 신제품(30명) 등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JW중외제약, '프렌즈' 렌즈 관리용액 2종

JW중외제약은 자사의 눈 관리 브랜드 '프렌즈'에서 렌즈 관리용액 2종을 재단장해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JW중외제약은 프렌즈 '렌즈세정액'과 '렌즈보존액'의 기능성, 안전성, 디자인 등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두 제품 모두 눈물과 동일한 pH 수준을 유지해 눈에 대한 자극이 최소화

된 것도 특징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인증도 받았다.

이와 함께 JW중외제약은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더해 젊은 소비자층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프렌즈 렌즈 관리용액 2종은 전국 약국과 JW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온라인으로
정규 학사 학위 취득

한양대학교의



- ✓ 국내 최대 사이버대학교
- ✓ 글로벌 TOP100 6위
- ✓ 서비스품질지수 최다 1위



클래스로

| 한양사이버대학교

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최대 재학생 수(16,802명)

2024 세계혁신대학 랭킹 TOP100 6위
(Culture/Values 부문, 국내 대학 중 최고 순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최다 1위
사이버대학교 10년 연속 1위(총 18회 선정)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 이 광고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전용서체
“한양사랑체”를 사용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무료다운로드 - 한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한양사이버대학교 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4년 12월 01일(일) ~ 2025년 1월 16일(목)

입학
지원



건축도시건설공학부 건축도시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제어공학과 / 자동차IT융합공학과 에너지신소재공학부
스마트배터리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 반도체공학과(계약학과)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국방융합기술학과 /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경영학부 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 글로벌경영학과 / 마케팅학과 / 생산물류유통학과 / 재무·회계·세무학과 국제언어문화학부 영어학과 / 일본어학과
/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사회과학부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 광고미디어학과 / 교육공학과 / 법·공무행정학과 /
보건행정학과 / 부동산학과 / 사회복지학과 / 아동학과 / 호텔외식경영학과 심리상담학부 군경상담학과 / 미술치료학과
/ 상담심리학과 / 청소년상담학과 항공학부 항공운항·관광항공서비스학과 디자인학부 건축공간디자인학과 /
뉴미디어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학과 / 예술문화디자인학과 / AI산업디자인학과 스포츠학부 AI융합자유전공학부

입학문의 | 02.2290.0082 / 카카오톡 : 한양사이버대학교 채널





한전, 2년 연속 '우수 사회공헌 인정기관' 달성

한국전력은 지난달 27일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공기업 최초 2년 연속으로 본사 및 전국의 모든 지역본부 15곳이 우수 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애경산업,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 생활용품 지원

애경산업은 3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충남도청에서 2000만원 상당의 치매 예방 교구 300세트와 저소득 노인 가정 등을 위한 1억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



나성균 네오위즈홀딩스 의장, 은탑산업훈장 수훈

네오위즈홀딩스는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제 25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고 3일 밝혔다.



상장회사협의회, 사랑의 동산 등 800만원 후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동산, 한국소아암재단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KCC, '지속가능성대회' 3관왕

KCC가 지속가능성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ESG 우수기업임을 입증했다. 정재훈 사장은 '지속가능경영 실천 최고경영자상(CEO상)'을 수상했다.



KCC는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 제조 부문 10년 연속 '우수보고서' 선정 ▲지속가능성지수(KSI) 건축자재 산업 부문 1위 ▲정재훈 대표이사 최고경영자상(CEO상) 수상까지 대회 유일의 3관왕을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KCC는 또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우수보고서로 선정됨에 따라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우리금융그룹, 이웃사랑성금 150억 쾌척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2009년부터 매년 나눔 실천 임종룡 회장 "온기 널리 전파되길"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희망2025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서 제1호 법인기부자로 이웃사랑성금 150억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우리 사회의 이웃들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성금 모금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4497억원 모금이 목표다.

이날 우리금융그룹과 삼성 등의 기부로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은 14.5도로 출발했다. 나눔 목표액의 1%인 약 45억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온도가 올라간다. 우리금융의 150억은 3.3도의 열기를 더하며 나눔의 불씨를 지켰다.



지난 2일 '희망2025 나눔 캠페인'에서 우리금융그룹이 대표 법인기부자로 참여해 기부금 전달식 후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09년부터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전 그룹사가 함께 참여해 매년 나눔을 실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저출산, 청년실업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150억원을 기부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사랑의온도탑 나눔 온도가 빠르게 100°C에 도달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가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며 "우리금융그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상생금융 확대와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실천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더 프레임 TV'로 아트 바젤 작품 감상하세요"

삼성전자 아트 바젤 컬렉션 추가

삼성전자가 '삼성아트스토어'를 통해 아트 바젤(Art Basel)에 출품된 1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아트 바젤 컬렉션에는 ▲프레드 토마셀리(Fred Tomaselli)의 어원의 정원(Irwin's Garden) ▲칸다다 알바레스(Candida Alvarez)의 대체로 맑은(Mostly Clear) 등 근현대 미술작품이 포함된다.

아트 바젤은 근현대 미술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아트 페어로 매년과



'더 프레임'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프레드 토마셀리(Fred Tomaselli)의 Irwin's Garden(어원의 정원).

리, 홍콩, 마이애미, 바젤에서 개최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지(현지시간) 열리는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Art Basel Miami Beach)' 전시장에 삼성 더 프레임 TV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삼성 아트스토어 컬렉터스라운지'를 마련했다.

전시 방문객들은 삼성전자 공식 파트너인 TV 프레임 전문 제작업체 데코티브 프레임즈(DecoTVFrame)가 공개하는 더 프레임 전용 베젤도 만나볼 수 있다.

백남균 덕성여대 교수 산업부 장관 표창 수상

덕성여자대학교는 백남균 사이버보안공학 교수(사진)가 지난달 26일 열린 '제14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2024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수상자로 선정된 백남균 교수는 산업보안 및 융합보안 분야 인재양성과 교육 혁신에 공헌하고 다수의 기술적 및 관리적 보안 분야의 우수 연구 논문을 발표해 학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대학ICT연구센터'의 책임자로 선정돼 AI 보안, 네트워크 보안 및 정보보안 산업정책 등에 특화된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대차, 자연환경복원 ESG 사업 참여

환경보전원-아산시 업무협약

현대자동차가 민관협력으로 진행되는 자연환경복원 ESG 사업에 참여한다.

현대차는 한국환경보전원, 아산시와 함께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업장 인근의 충남 선장면 군터리 773-2일원으로 선정됐다.

현대차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축구장 면적의 약 1.3배 크기인 9000㎡ 공간에 ▲수서생물원 ▲철새관찰대 ▲생태학습공간 등을 조성해 생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향후에도 사업장 인근지역의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자연



현대자동차가 한국환경보전원, 아산시와 함께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대차 GPO 김일범 부사장은 "현대차가 민관협력으로 진행되는 자연환경복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대차는 앞으로도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ESG경영 및 자연환경보존,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순차적으로 남해군, 순천시, 남원시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남해군, 순천시, 남원시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하동군, 보성군, 광양시, 임실군, 순창군 주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몬스침대 '크리스마스 마켓' 운영

시몬스가 연말을 맞아 경기도 이천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다.

3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6~8일 그리고 13~15일까지 총 6일간 시몬스 테라스 지하 주차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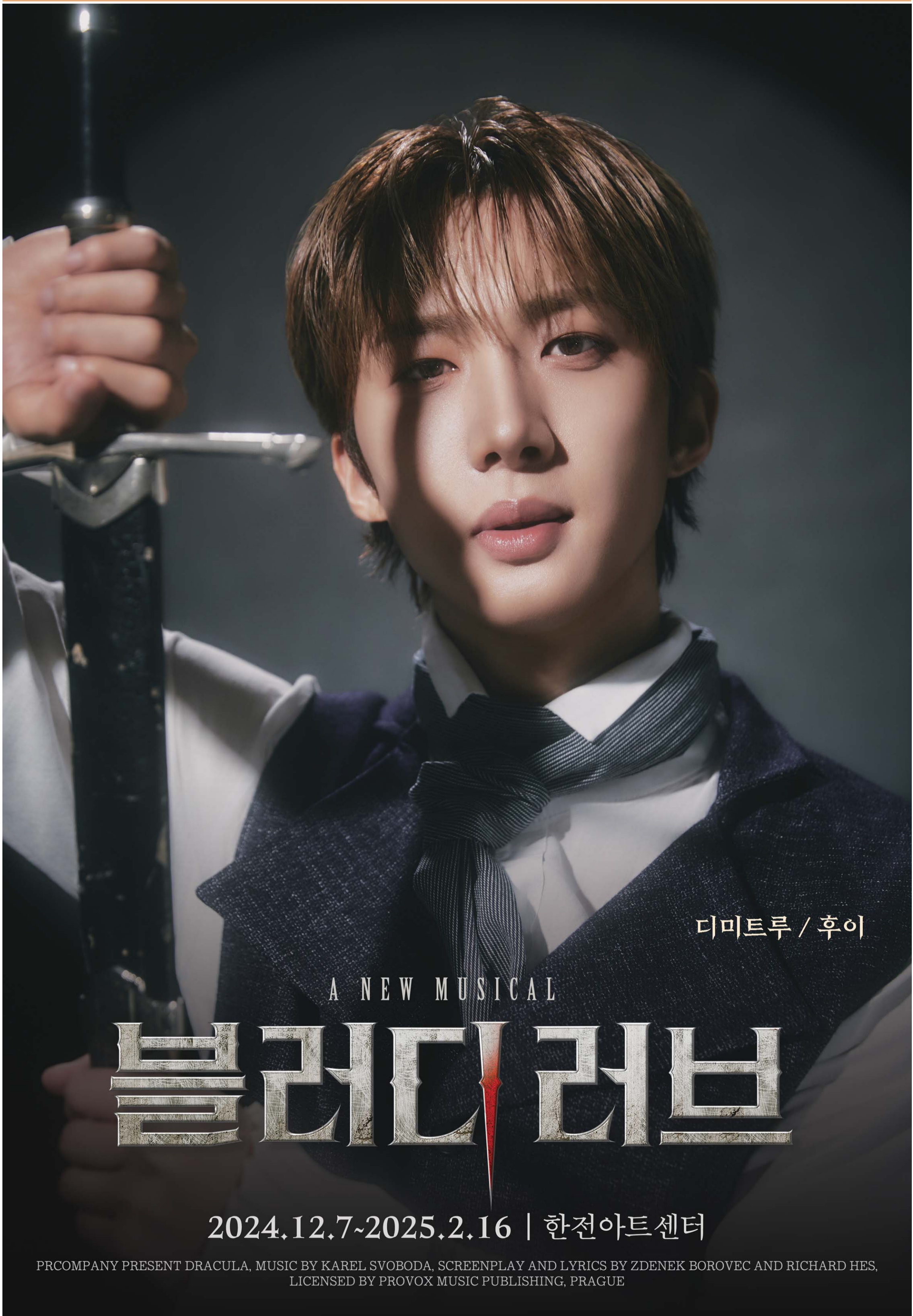
올해 2회째를 맞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시즌 상품부터 이천 지역 농산물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 7회째를 맞는 '크리스마스 트리 및 일루미네이션'과의 시너지가 더해지며 방문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인사

- ◆금융위원회 ◇팀장급 △박성진 의사 운영정보팀장
◆삼성카드 ◇부사장 승진 △김대순 ◇상무 승진 △김도현 △유상일 △한상민
◆삼성증권 ◇부사장 승진 △고영동 ◇상무 승진 △김영수 △박성호 △이기덕 △이병훈 △이성주
◆삼성생명 ◇부사장 승진 △박해관 △이종훈 ◇상무 승진 △김원 △송준규 △양경용 △원창희 △유승협 △장정수
◆삼성화재 ◇부사장 승진 △고기호 △박민재 △방대원 △이상동 ◇상무 승진 △김도형 △김수연 △김철진 △이범열 △이해성 △조진만 △최성진
◆삼성자산운용 ◇부사장 승진 △김용민 ◇상무 승진 △박지호 △유진환
◆LS증권 ◇상무 △홍세일사업부 대표 윤원재 △복합금융본부장 배건 △IT지원본부장 박정우 △리테일금융본부장 조문종 △Trading Solution본부장 박정민
◆NH투자증권 ◇부사장 △Retail사업총괄본부장 이재경 △운용사업부 대표 이수철 ◇상무 △퇴직연금건설팀본부장 홍국일 △Digital자산관리본부장 김봉기 △Client솔루션본부장 박건후 △주택도시금융본부장 문혜경 △리스크관리본부장 이경수 △준법지원본부장 손승헌

부음

▲김기홍씨 별세, 김정일(삼진제약 전무이사)씨 부친상 =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02-860-3500



디미트루 / 후이

A NEW MUSICAL

블러디 러브

2024.12.7~2025.2.16 | 한전아트센터

PRCOMPANY PRESENT DRACULA, MUSIC BY KAREL SVOBODA, SCREENPLAY AND LYRICS BY ZDENEK BOROVEC AND RICHARD HES,
LICENSED BY PROVOX MUSIC PUBLISHING, PRAGUE

스트레스



진성오 소장의
신비한 심리사전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일상의 용어가 되어 있으나 정의와 범위는 그 만큼 복잡적이고 복잡하다. 원래 스트레스는 물리학 혹은 역학에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을 의미한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이다. 이는 자연재해, 해로운 조건, 질병, 해고 등과 같이 환경 속의 사건에 중점을 둔다. 이 접근은 상황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의미를 정의하지만 그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 간의 차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정의는 스트레스의 상태를 의미한다. 보통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그 사람이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있다고 표현된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정의는 제한된 측면이 있다. 세 번째 타당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는 개인의 자원을 청구하거나

초과하며,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이다. 그리고 여기서 스트레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의 평가에 따라 다르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소들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거나 덜 받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스트레스로 여기느냐 아니냐라는 점이다. 더 나가서 어떤 것을 스트레스로 여기는가, 아닌가의 여부는 스트레스에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개입하는가와, 어떤 사람의 신념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의 개념은 수세기 동안 존재하여 왔으나 심리학 및 의학에서 연구의 주제로 자리 잡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스트레스 연구에 한 역할을 했다. 현대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제2차 세계 대전과 한국의 6·25전쟁으로 연구가 촉진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전쟁만큼 인간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는 인간에게

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불가피한 것이며 같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부터의 영향도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가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과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대칭되는 의미에서 유스트레스(Eustress)가 있다. 유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유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태는 운동이다. 운동을 할 때 사실 고통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또 그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게 되기도 하지만 운동은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스트레스다.

다른 영역도 그렇겠지만 사람의 마음과 연관된 영역에서는 역시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통용되는 측면이 많다.

100점 만점인 스트레스 평가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점수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딱 50점이 결혼이다. 배우자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스트레스인데 결혼도 반 정도의 스트레스에 해당된다고 하니 일면 모순되면서도 통찰력 있는 평가 점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오늘의 운세 12월 4일 (음 11월 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잃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 48년생 힘들어도 일을 추진하면 결과는 만족스럽다. 60년생 사랑하는 사람이 한눈을 파는 것 같다. 72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지만, 현상 유지를 해야 하는 날. 84년생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



37년생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는 것이 좋다. 49년생 성공이 가장 완벽한 복수다. 61년생 독선으로 선봉에 나서면 남들의 시기를 받는다. 73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하자. 85년생 오전에 친구의 부음을 듣는다.



38년생 이사계획에 망설이지 마라. 50년생 금전과 사랑이 따르는 하루. 62년생 일이 잘 풀려도 의외의 복병을 조심. 74년생 오손없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좋은 일을 한다. 86년생 여자에게 치우치지 말고 가정의 화목을 우선시라.



39년생 나눔에도 중심을 잘 잡아야 원망을 듣지 않는다. 51년생 남쪽으로 여행 수가 있다. 63년생 이기적인 마음이 가족에게 상처를 준다. 75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성실로 극복할 수 있다. 87년생 집안에서 마음이 울적하니 밤 먹자.



40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병행이 시작. 52년생 인맥을 활용하여 성과를 본다. 64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76년생 이직을 하거나 동봉서주해봐야 별 이익이 없으나 그래도 움직여라. 88년생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려라.



41년생 형편과 능력에 맞춰서 행동. 53년생 재혼하려다가 망설임이 행운을 차는 결과. 65년생 달리려고만 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라. 77년생 남의 말만 듣고 반대 잡으려 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89년생 친구를 차별하면 원망을 듣는다.



42년생 소미 밴드와의 만남이 즐거운 일을 부른다. 54년생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라. 66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이성과의 만남은 자제. 78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주는 게 미덕이니. 90년생 가뭄이 해결되듯 일이 잘 풀린다.



43년생 고집을 세우면 식구도 외면. 55년생 사공이 많으면 의견충돌이 어렵다. 67년생 두 손에 땀을 흘리고 남의 것까지 욕심. 79년생 어려운 일이지만 선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 91년생 목이 마르면 스스로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온다.



44년생 귀인을 만나 재물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56년생 투자하지는 유혹이 많으니 진중하게 행동. 68년생 상사와의 대화를 통해 어려움이 해결. 80년생 가방 분실 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을 조심하도록. 92년생 매화가 만발하니 곧 봄이.



45년생 바쁘더라도 우편물을 꼭 확인하자. 57년생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니 모든 일이 손조롭다. 69년생 늦지 않았으니 많은 준비를 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 81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 93년생 많이 먹고 체할 운이다.



46년생 밀 빠진 독에 열심히 물을 붓고 있는 형국. 58년생 실패를 두려워 말고 정면으로 돌파. 70년생 당장은 어려워도 꾸준히 노력. 82년생 삶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으니 의견이 달라도 포용하면서 도전. 94년생 젊음이 있으니 용기를 내자.



47년생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라. 59년생 아직은 뭉든 열심히 하면 운도 따른다. 71년생 질환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으로. 83년생 상대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자신의 계획을 신념대로 실천하자. 95년생 공돌이도 돈만 쓰고 실속이 없었다.

양극화 해소, 지금 들여다보아야



기지수첩
김정산 (금융부)

또래보다 고등학교 졸업이 늦었고 대학에도 입학하지 않았다. 당시 전라북도 진안군에 있는 작은 여행사에서 가이드로 일했는데 살던 집은 읍내에서 자전거로 15분 거리였다. 서울에 오랜 기간 살았지만, 당시 기억은 좋게 남아 있다. 마이산 초입에 있는 마을이었고 주말이면 들고양이 우는 소리와 함께 경운기 소리가 잠을 깨웠다. 월세 10만원에 투룸, 심지어 시내버스 2대는 세울 수 있는 크기의 마당도 있었다. 정확히 10년 전의 일이다.

지난달 휴가로 통영에 다녀왔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진안에서 점심 식사를 할 겸 내가 살던 마을을 지나갔다. 깜짝 놀

랐다.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란 말이 꼭 맞았다. 집의 대부분이 철거됐고 내가 살던 주택 부지에는 양육집이 들어섰다. 과거 마을에는 수박밭이 있었는데 대부분 주차장으로 변했다. 이제는 마을에 10가구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다. 서울로 돌아온 지 10년 말로만 들었던 지방소멸을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또 10년뒤 마을이 어떻게 변할지 머릿속에 그려졌다.

십수년전부터 서울과 지역, 도농간 양극화 해소는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됐다. 양극화 해소는 지역은 물론 금융권에도 적용된다. 특히 저축은행이 그렇다. 올 3분기 상위권 저축은행은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적어도 적자를 기록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이익이 반등했다. 부실채권(PF)을 털어낸 영향이다.

반대로 지방 저축은행은 상황이 더 나

빠졌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크게 올랐다. 대구·강원·경북, 호남, 충청 모두 연간 2배 이상 경중 뛰었다. 지난 9월말 기준 저축은행 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도 부산·경남 지역에 있다. 지역이 쇠퇴하면서 부동산 경매 활성화나 기업 여신 확대가 부진한 탓이다.

결국 지역이 있어야 지역 저축은행도 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금융기관이 필요하다. 서로의 요구에 따라 꼭 필요한 존재다.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약속했다. 정작 기획재정부는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했다. 정치인들이 지방 살리겠다고 약속한 지 십수년이 지났다. 이미 늦었다. 그러니 빨리 시작해야 한다.

/kimsan119@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코스닥과 비트코인

코스닥은 1996년 개설됐다. 코스닥에 상장할 때는 코스피에 비해서 규제가 조금은 느슨하다. 시장 진입과 퇴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투자 위험도가 높은 편이다. 소규모 기업과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이 많고 주가가 급등락하기도 한다. 코스닥이 개설된 초창기에는 주가 급등락으로 순식간에 졸부가 되고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진 경우도 많았다. 주식투자는 수익의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큰돈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주식시장을 흔히 전성터와 비교하는데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기본 용어를 비롯해서 충분한 공부와 경험을 쌓고 투자에 나서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자, 비트코인으로 가보자. 1개에 1억 3000만 원. 이렇게 말하면 단박에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게 똬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도대체 뭐기에 달랑 1개에 1억 3000만 원이나 하는 걸까. 항상 화제가 끊이지 않는 비트코인이 그 주인공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략적 국가 비축자산으로 삼겠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다.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처럼 실물이 없고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사용하는 디지털화폐를 말한다. 중앙은행이나 정부 같은 공공기관이 관리하지 않고 민간이 관리하는 화폐다. 가상화폐가 진짜 돈은 아니어도 온라인에서는 결제 수단이나 거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코인 중에서도 비트코인은 황제와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명리에서 비견이 왕 하면 재물을 끌어오는 힘이 강한테 십성十星이라는 개념이 있다. 십성은 가족 관계, 직업과 재산 등 다양한 현상을 분류해나갈 수가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책 출간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3			9	1			
				2	9			
		8	7		3	5		
8				7	5			
		6	9					3
	9	8		6	1			
		1	4					
		2	3			7	8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1	8	2	9	6	8	2	9	7
6	8	9	8	7	7	1	9	2
9	2	7	1	9	2	8	6	8
8	2	7	8	6	9	1	9	1
7	1	8	8	9	9	2	6	8
9	6	9	2	1	2	7	8	8
2	9	8	9	2	8	6	7	1
2	7	6	2	8	1	9	8	9
8	9	1	6	7	9	8	2	2

6	7	2	8	1	9	9	8	2
8	2	9	7	6	2	8	1	9
9	8	1	8	2	9	7	2	6
2	9	9	1	7	2	8	6	8
8	1	6	9	9	8	2	7	2
2	8	7	6	2	8	9	9	1
7	6	8	9	8	1	2	2	9
1	9	2	2	9	7	6	8	8
9	2	8	2	8	6	1	9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6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6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인천시, 재외동포 거점도시로... 환영음악회·국제행사 유치

2025~2026년 '교류·방문의 해' 세계한인의 날 10월5일 전후로 방문주간 운영하고 이벤트 개최 2025 모국 초청연수 개최 지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8일 경원재엠버서더인천에서 열린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시가 내년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 '교류·방문의 해'를 설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시는 재외동포청의 인천 출범을 계기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모국인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재외동포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2025~2026년을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이하 '교류·방문의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세계한인의 날인 10월 5일을 전후로 재외동포 방문주간을 운영하여 환영이벤트를 개최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인천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재외동포와 인천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환영음악회를 개최하고, 다국어

관광 안내, 관광지·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환영부스도 운영한다.

이어 재외동포들이 송도컨벤시아나 하버파크호텔, 인천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경우, 할인을 적용해 다양한 관광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혜택은 지난 10월 18일 '2025~2026 재외동포 인천교류·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체결한 '인천시-인천관광공사-인천마이스(MICE)얼라이언스 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해외거주 재외동포 중 인천에 연고가 있는 동포를 '인천인(人) 재외동포'라 칭하고 현재 141명의 자료를 구축했다. 또 이들에게 온라인 소식지를 보내고 인천으로 초청해 시정 견학을 제공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향후 인천의 대내외적 투자·외교활동 및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 등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

울러 재외동포청과 협업을 통해 '2025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를 인천에서 개최하도록 지원해 1,200여 명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인천의 발전상과 역사·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인천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러한 재외동포와의 교류·협력의 기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협력도 강화해 간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단체인 (사)세계한인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2025년 10월에 송도에서 개최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동포청 주최로 열리는 '2026년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도 돌입한다.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교류·방문의 해 기간에 집중 개최해 재외동포 거

점도시 인천을 재외동포사회에 각인시키고, 인천의 중소기업과 재외동포 또는 해외 기업과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재외동포와의 교류·협력 활동의 중심에는 '재외동포컬센터'와 '한인비즈니스센터'가 있다.

올해 10월 18일 개소한 양 센터는 인천시의 비즈니스·의료·교통·생활·관광 등 분야별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비즈니스상담, 교류회의, 재외동포 만남의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재외동포와 교류 및 비즈니스의 핵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윤현모 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은 "올해 인천시는 재외동포 친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재외동포 관련 단체와 다섯 차례의 업무협약을 포함한 20여 회의 유의미한 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해 왔다"라며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인천시가 글로벌 톱티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수험생 '시험무효 확인' 소송청구 취지 변경

연세대, 8일 추가 2차시험 시행하고 '1차 시험 합격자' 합격 처리하기로 수험생 "1차 시험 공정성 훼손됐다"

연세대학교가 지난 10월 실시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가 유출돼 '재시험 이행' 소송을 냈던 수험생들이 최근 이를 '시험 무효 확인' 소송으로 변경했다. 반면 연세대는 해당 시험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1차 시험 효력을 두고 대학과 수험생들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법조계와 연세대에 따르면, 수험생 측이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본안 소송 청구 취지를 기존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수험생들은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며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그러나 최근 연세대가 재시험을 확정하자, 이를 다시 '1차 시험 무효 확인 소송'으로 되돌린 것이다.

연세대는 오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2차 시험은 물론 앞서 지난달 치러진 1차 시험 합격자 모두 논술전형 합격자로 처리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2차 시험 역시 1차 시험 정원(261명)만큼 뽑는 대신, 2차 시험에 대한 추가 합격자 모집은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시험은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상실했으므로, 정식 시험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수험생 측 주장이다. 수험생 측 변호를 맡은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가 1차 시험은 추가 합격자까지 261명을 채워 뽑고 2차

시험 결과로는 최초 합격자만 뽑겠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2차 시험에서는 (합격자들) 거의 뽑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1차 시험을 무효로 인정하거나 최초 합격자만 뽑고 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까지 모집하는 게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 첫 변론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반면 연세대는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들의 해당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차 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했고, 대학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현진 기자 ihj@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서울서 개최

농식품부, 올해 이어 내년도 유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미식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아시아 지역의 최고 레스토랑을 1위부터 50위까지 발표하는 시상식이다. 미식업계가 주목하는 화두에 대해 논의하는 '베스트 50 담론', 한국의 재료와 서울의 미식을 선보이는 '요리사의 만찬'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국의 미디어회사 윌리엄리드社 주최로, 글로벌 미식 오피니언 리더들의 투

표를 통해 50대 레스토랑을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요리사 및 식당경영자(34%), 음식평론가(33%), 미식여행가(33%)로 구성된다. 또 남녀 성비를 동등하게 운영해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 행사는 지난 2013년 시작으로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개최돼 왔다. 국내에서는 올해 3월 서울 개최가 처음이다. 당시 세계적인 유명 요리사, 식품·외식산업 종사자, 식품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발효음식, 사찰음식 및 소고기 정형 문화 등 우리나라의 다채로운 식문화를 알렸다. 장(醬)을 비롯해 볶나물, 전복 등 다양한 식재료를 선보이는 등 한식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서울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누리집' 개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을 개편하고 오는 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행정서비스는 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및 학

부모·교직원 대상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누리집이다. 지난 2007년도 구축된 이후 현재까지 개편 없이 운영돼 증가하는 법무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한 법무행정서비스는 ▲입법예고 ▲자치법규 ▲소송안내

▲행정심판 ▲소청심사 ▲법률상담 ▲법무행정 자료실의 총 7개 메뉴로 구성된 법무행정 기능이 강화됐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고문변호사의 학부모·교직원 대상 무료법률상담 기능을 확장하고, 입법예고 게시판도 새로 만들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법무행정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소송실무집잡이'를 제작·배포하고, 법무행정 자료실도 운영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12월 4일 (수) 음력: 11월 4일

수도권 날씨: -3 ~ 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6/3, 동두천 -5/4, 가평 -6/3, 파주 -6/3, 서울 -3/4, 양평 -3/4, 인천 -2/4, 수원 -2/3, 용인 -2/3, 평택 -4/4

해돋이: 07:31 | 해질: 17: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맨친 "바이든 아들 사면, 돌 안 던질 것...트럼프도 사면하라" /사진 뉴시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서 공급받은 탄도미사일 60발 사용"

▲美, HBM·반도체장비 中 수출통제에 국내 업계도 긴장...“영향 최소화”
▲지구촌 전쟁 통에 100대 방산기업 무기 수출 4.2% ↑



▲트럼프 국방장관 지명자 과거 음주·성비위 문제로 단쳐서 퇴출
▲인텔 팻 겔싱어 CEO 사임...경영난 책임 진 듯 /사진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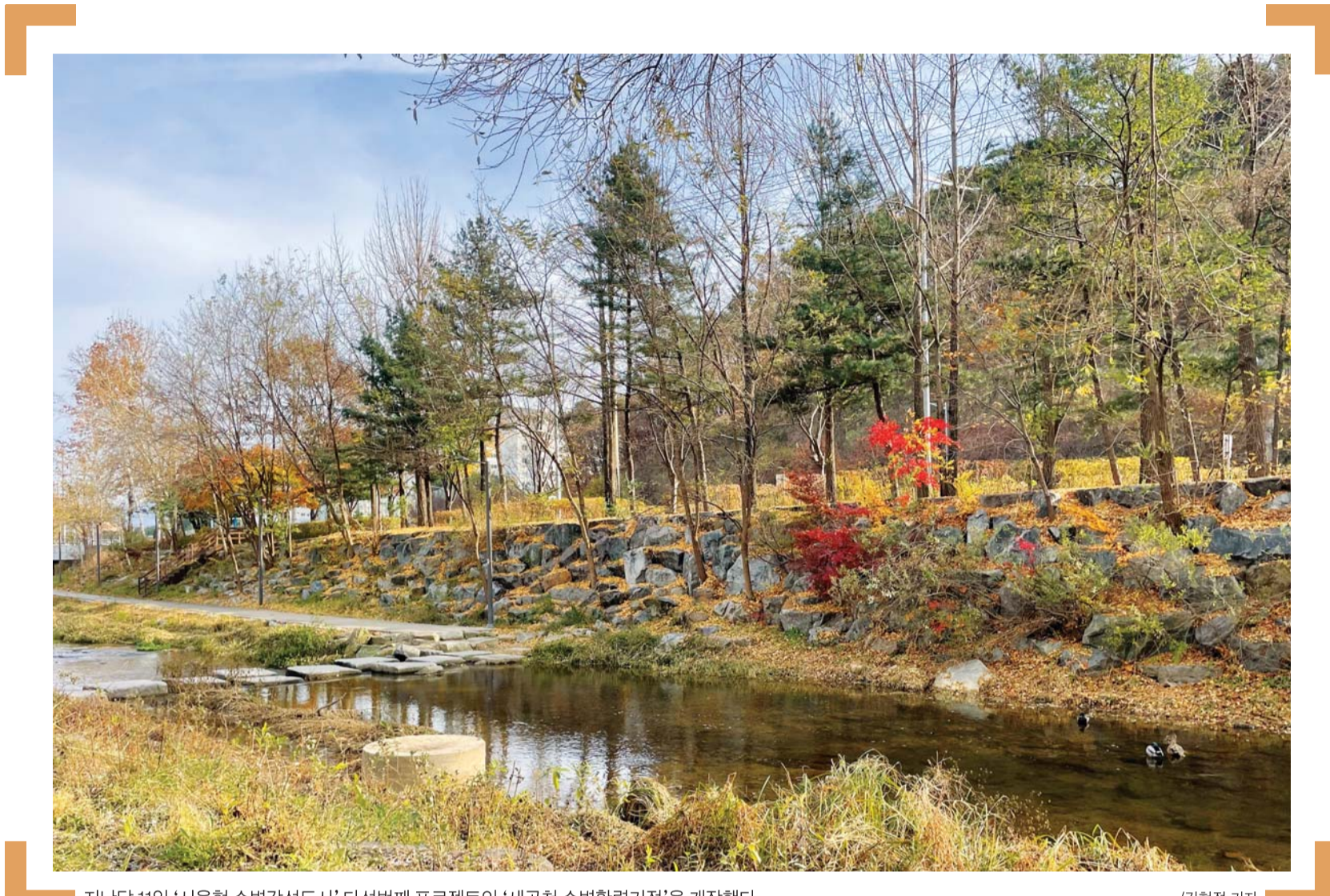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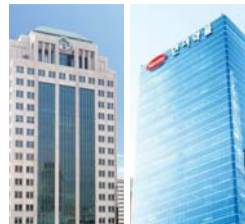


이상기후에
美 관세까지
식품물가 '초비상'
L1



Life

유한양행·한미약품
표적 항암제
개발 도전
L2



지난달 11일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다섯번째 프로젝트인 '세곡천 수변활력거점'을 개장했다.

/김현정 기자

♥ 되살아나는 서울

강남구 세곡천 수변활력거점

서울시가 지난달 11일 '서울형 수변 감성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곡천 수변 활력 거점을 조성해 개장했다. 수변 감성 도시 사업은 서울 곳곳을 싹틔움처럼 잇는 78개, 334km 길이의 소하천과 실개천 수변 공간을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프로젝트다.

시는 작년 1호 홍제천 홍제 폭포 카페의 문을 연 데 이어 올해 2호 관악구 도림천 공유형 수변 테라스, 3호 동작구 도림천 주민 커뮤니티, 4호 홍제천 상류 홍지문 역사문화 공간을 차례로 개장했다. 시는 서울형 수변 감성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 전역에 흐르는 물길을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 경제, 휴식·여가 활동이 이뤄지는 신개념 수변 공간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현재 서울시내 하천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자연 생태형 ▲역사 관광 명소화형 ▲지역 경제 활성화형 ▲문화·여가형 총 4가지 형태의 수변 활력 거점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단풍나무 따라, 청둥오리 따라 수변 걸으니 감성이 '뽐뽐'

◆수(水)세권 품은 복합문화공간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에 새롭게 생긴 세곡천 수변 활력 거점(세곡동 509)을 방문했다. 지하철 3호선 수서역 6번 출구로 나와 강남06-1번 마을버스를 타고 8개 정류장을 이동해 강남신동아 파밀리에 2단지 정거장에서 내려 목적지에 닿았다.

가장 먼저 실여울교 앞에 자리한 물맞이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주황색, 노란색 고운 빛깔을 자랑하는 단풍나무가 방문객을 맞았다. 이날 오후 물맞이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은 늦가을 찬바람을 맞아 감기에 걸리는 게 걱정됐는지 마스크와 모자, 목도리로 중무장한 차림으로 느릿느릿 산책했다.

공원 내 오솔길을 따라 세곡1교 방향으로 걷다 보면 하천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물맞이광장과 수변 스탠드가 나온다. 아기 배넛머리처럼 들쭉날쭉 자란 연둣빛 사초, 보라색 데이지 같은 청화쭈부쟁이, 잎끝이 붉은 홍피 등 들깨단 사이사이에 식재된 식물들이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만들었다.

◆수변 라이프 즐기는 곳

은곡사거리 구간은 녹지와 펜스로 막혀 있던 기존 공간이 뽐 뚫린 사거리광장으로 재정비됐다. 지난 11월 25일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개천 위를 동동 떠다니는 청둥오리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다.

깊이가 얇은 천에 먹이가 있을까 궁금해 넓적한 직사각형 모양의 돌다리를 건너면서 하천

서울시, 수변 감성 도시 프로젝트 일환 홍제천 이어 세곡천에 수변활력거점 조성 물길 따라 문화·휴식 어우러진 공간으로

아랫반 마을과 하천 잇는 개방 공간 설계 수생생물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 데크 사면 활용한 클라이밍·줄타기 놀이터도

바닥을 눈으로 훑었다. 검지와 약지, 소지 크기의 피라미들이 떼를 지어 돌무더기 근처에 몸을 숨기곤 천적의 눈치를 살폈다. 작은 물살이 들은 잎이 가느다랗고 긴 낙엽과 생김새가 매우 흡사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확인해야 나뭇잎과 식별이 가능했다.

사냥꾼에게 쫓기는 먹잇감의 절박한 심정을 알 리 없는 동네 주민들은 물고기가 숨어든 돌다리 위를 자유로이 거닐며 걷기 운동을 했다.

이날 세곡천에서는 사람들 몰래 무언가를 하고 있는 노인도 볼 수 있었다. 그는 두툼하고 거친 손으로 블루베리처럼 생긴 맥문동 열매를 한 움큼씩 따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재빠르게 담았다.

마치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을 한국 버전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보는 듯했다. 맥문동 열매를 채취하는 어르신을 지나 세곡5교로 자리를 이동했다. 요트 돛처럼 생긴 조형물이 달린 다리 서쪽에 자리한 반고개테라스는 근

린생활시설이 밀집한 아랫반 마을과 하천을 잇는 개방된 공간으로 설계됐다. 스탠드 곳곳에 네트형 휴게 공간이 생겼고, 다양한 수생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 체험 데크도 설치됐다.

아이들을 위한 사면 놀이터는 세곡보도2교 일대에 조성됐다. 둔치 사면을 활용해 그물망타기, 줄타기, 미끄럼틀,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놀이터로 만들어졌다.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과 연계하기 위해 대왕어린이공원 인근에 뒀다고 한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향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친수 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곡4교 밑에 빛의 갤러리를, 물맞이공원 앞에 수상 무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1 수변공원에 조성된 갈대숲을 따라 산책 중인 시민들. 2 계단 형태의 수변 스탠드와 물맞이광장. 3 청둥오리를 구경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 4 사면을 활용해 만든 자연 친화적 놀이터.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KIA 김도영, 트로피 또 수집...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사진 뉴시스
▲ 호날두와 슈팅 대결해 완승한 일본인, 상금 14억원 획득

▲ 대한체육회장 출마 선언한 유승민 "모든 걱정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도전"
▲ 신문선,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정몽규·허정무와 삼파전



▲ KBO, '음주운전' 롯데 김도규에 70경기 출장 정지 /사진 뉴시스
▲ 여자농구 우리은행 김단비, 개인 통산 8번째 올스타 팬 투표 1위